

제420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2월20일(금)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긴급 현안질의
- 긴급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추가)

상정된 안건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
2. 긴급 현안질의	2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기현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18
3. 긴급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	18
2. 긴급 현안질의	19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전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울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위원장 전재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제125조 제6항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요청에 관한 청원을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심사기간을 관례에 따라서 2026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긴급 현안질의

(10시10분)

○위원장 전재수 의사일정 제2항 긴급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안질의는 12·3 비상계엄 이후 관광 분야와 K-콘텐츠 분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면 증인의 순서를 받은 후 위원님들께서 증인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이외의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11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오늘 개최하는 현안질의에 증인 열아홉 분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으며 모두 출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유산청 최웅천 청장님,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대진 총장님, 국가유산청 황권순 기획조정관님, 국가유산청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님, 국가유산청 박정섭 운영지원과장님, 한국정책방송원 추동진 편집팀장님, 프리랜서 지교철 님께서 배석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이기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이기현입니다.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장님, 오늘 출석한 KTV 방송보도부 추동진 팀장은 지난 12·3 계엄 사태 관련된 KTV의 방송 보도를 비롯해서 7월에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재난대응시스템 매뉴얼 또 10월에 만들어진 북한 기습도발 시 생방송 제작안 작성 등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있습니다. 증언의 신빙성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추동진 팀장을 증인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강유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유정입니다.

연합뉴스 황대일 사장과 관련해서 시급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황대일 사장이 취임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던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권과 유착의혹이나 보도 독립성 해손 등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간통신사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내란 상황에서 현실화된 우려들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 기사에서 허위·미화·축소라는 3종 물타기 세트를 교묘하게 구사하면서 형법 제87조~91조 사이에 있는 내란 선전에 해당하는 그런 허위 뉴스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방부와 합참 주요 인사들도 몰랐다는 허위 주장을 기사에 실었고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엄을 마치 급박한 상황에 이른 것처럼 왜곡했고, 내란 시도를 정의의 길로 포장한 김용현의 발언을 그대로 실어 미화하는 보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2월 18일 자만 보더라도 고개 숙인 유인촌, 계엄은 잘못된 것, 한예종 폐쇄 관련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일방적 기사 역시도 싣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령 다음 날 굉장히 빠르게 단독 기사로, 계엄군에게 실탄 지급이 없었다라는 기사는 매우 심각합니다. 탄창 박스는 공포탄과 모의탄이 담긴 박스로 추정된다라고 단순 추정을 사실로 못 박아 허위 뉴스로 만들어 냈습니다. 이것은 허위 사실 유포와 다름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법상 규정된 내란 선전 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 투입 발언의 근거가 바로 이 연합뉴스 근거가 쓰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보도지침이 아니라 내란 세력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그간에도 국가 기간통신사에서 사설, 시론 없앴고 이 대신에 팩트 체크 전담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팩트 체크라는 말이 무색하게 이렇게 허위 뉴스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황대일 사장 그리고 심인성 편집국장 그리고 정열 감사실장을 언론에 관한, 연합뉴스에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의 증인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 내란 상황에 반민주적인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오히려 은폐하고 미화하고 허위 뉴스를 통해서 민주주의에 강력한, 중대한 도전을 보여 주고 있는 사례로 언론의 필수적인 견제 기능 자체를 무력화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런 행태를 좌시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양문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강유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들으면서 좀 참담합니다. 연합뉴스와 관련된 예산을 정상화시키자라고 강력하게 요구해 왔고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의 그 역할들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참혹합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보면요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이런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령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 24년 12월 3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입니다.

2번, 3번 이 부분은 우리가 일찍이 1979년 이후 1980년 전두환 도당들의 군사 쿠데타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경험했던 내용이고, 80년 내내 군인들이 신문사에 들어와서 신문사 편집국의 모든 기사를 일일이 검열하던 그 기억들을 또 다시 악몽처럼 현실에서 되살린 포고령입니다.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 모든 언론사, 이걸 정녕 연합뉴스는 받아들이려고 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들의 역사적인 인식에 대한 그 무지함이 국민의 삶과 국가안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그러한 보도들이 나열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언론 자유 사수와 언론 자유의 확장을 위한 현안 청문회 또는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 관계자들이나 또는 언론 관련 단체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그들이 겪는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 언론 자유에 대한 사실상의

공포 이 부분들을 충분히 청취하고 다시 대한민국의 새로운 언론 자유의 지평을 공고히 하면서 확장하는 그러한 현안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이 부분에 대한 개최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신동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참담하게 생각을 합니다. 비상계엄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 중에 어느 누구도 동의할 분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차분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려냐 하면 이런 정치적 격변기가 되면 가장 힘들어하는 곳이 언론입니다. 저도 과거 언론사에 수십 년 근무를 하면서 가장 혐오해 온 것이 첫 번째가 정치의 언론에 대한 간섭이고 두 번째는 이런 정치적 격변기에서 언론이 가랑잎처럼, 폭풍우 앞의 가랑잎처럼 흔들리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강유정 위원님의 지적, 양문석 위원님의 지적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시국에서 특정 언론사의 최고책임자나 보도책임자를 불러서 우리 국회, 특히 정치권이 함부로 따지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또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이런 위험한 시국에서 언론 줄 세우기의 하나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더 큰 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기사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양산된 수많은 기사들에 대해서 과연 그 뒤에 그 기사들의 사실 여부를 우리가 검증했는가, 그래서 언론 스스로 이런 시국에서 이렇게 보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사후 검증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게 느낀 점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가짜 기사들이 양산됐는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이 잘못된 것을 따지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그것을 따지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가 잘못된 보도가 있다면 일단 그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무차별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특정 몇몇 개의 기사를 가지고 언론사의 보도책임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불러서 따지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언론 청문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의사진행발언이 많은데요, 하신 분들은 좀 기다려 주시고요.

김재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지난 국감에 KTV 김건희 황제관람, 소록도 방송 등을 기획한, 후에 청와대 비서관으로 승진한 최재혁 전 KTV 방송기획관, 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국감에 두 번이나 병을 칭하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또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님께서 찾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시술에 불과한 병을 평계 대고 국감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당한 국회의 국감 질의를 회피한 것이고 국회를 심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김건희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러한 소문에

더해 본 위원이 전 국감에서 지적했던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1부속실 내에서 아무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그리고 그 세력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암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은 최재혁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 대해서 이제는 질의를 할 순서가 반드시 도래를 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청문회를 개최하시어 국민들께서 이것에 대한 진실 그리고 1부속실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진실을 아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민형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1980년 5월 20일입니다.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신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당시 전남매일 기자들의 공개 사직서입니다.

신동욱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언론 줄 세우기 같은 그런 데 대한 우려에 공감하지 않는 바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태도로 현실에 접근해야 할 일을 거꾸로, 줄 세우기가 아니라 스스로 줄을 서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이 지점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980년 5월이 지금까지도 왜곡됐던 것은 당시에 언론이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합뉴스가 비상계엄 상황 그리고 그것이 이미 국회에 의해서 해제가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보도를 했다는 것은 저희가 줄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거기에 동조하거나 줄을 서려고 했을 가능성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언론이, 그리고 다른 공직자도 마찬가지지만, 언론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접근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가능하면 신속하게 이 청문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합뉴스뿐만 아니라 당시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 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청문회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리고 기대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박정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앞서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들 의견 다들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2월 3일 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의장이 시시각각 들어오는 계엄군들의 보고를, 얘기를 들으면서도 절차를 지키자고 하면서 차분하게 비극적인 상황을 그래도 막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상상도 못 했던, 있어서는 안 되는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을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과연 우리 관광은 어떻게 되는지 관광산업은 어떻게 되는지 K-콘텐츠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잡고자 이 자리에 오늘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이 그리고 간사간 합의가 없는 상황임에도 일정이 잡힌 것에 대해서 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선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시는 것 보면 또 다른 얘기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배석자로 되어 있는 일부를 중인으로 채택을 하자 그다음에 연합뉴스 관계자들도 중인으로 채택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게 다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우리 이럴 때 일수록 좀 차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국가를 정상화시켜야 되고 우리 국회의 기능도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칫 우리가 선불리 조금 앞서가다가 귀중한 우리 상임위도 자칫 잘못해서 앞서가는 정치 공방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여기서 자꾸 이런 공방을 하는 것보다는 여야 간에 합의가 좀 되고, 차분하게 우리 상임위는 어떤 일부터 챙겨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현안질의가 진행되고 그에 맞춰서 증인들도 채택이 돼야지 오늘 이 자리에서 갑자기,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사에 연루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증인으로 채택하고 또 다른 주제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원식 의장님의 하셨던 것처럼 절차에 맞춰서 차분하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식으로 현안질의가 진행이 된다면 결과는 또 비슷해질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을 차분하게 놓고 현안질의도 제대로 일정을 잡아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위원장님께서 일정과 여야 간의 합의사항을 좀 봐 주시고 현안질의를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양문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범죄집단 조선일보가 광주폭동이라고 이야기했고 남파 간첩의 책동이라고 이야기했던 1980년 광주, 군인들이 국민을 향해서 총질을 했던 1980년 광주, 언론이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으면 그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신동욱 위원님 말씀 중에 언론 줄 세우기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언론 줄 세우기가 아니고 사실 보도하라는 겁니다.

연합뉴스, 예를 들면 ‘국회 출동 계엄군 공포탄·모의탄 소지, 실탄 지급은 없었다’ 이미 이 보도가 나오기 전에 실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탄약 박스부터 시작해서 2000발에 가까운 실탄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연합뉴스가 벼젓이 실탄 지급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윤석열이 실탄 지급은 없었다고 자신의 기자회견 담화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합뉴스가 사실과 맞지 않는 가짜뉴스를 살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편파 보도 아닙니다. 가짜뉴스입니다.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연합뉴스가 보였던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합뉴스에 대해 보도를 비판하는 것들이 과연 절차에 맞지 않느냐?

절차의 문제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를 거치는 한 트랙이 있는 것이고 국회는 이 위급한 상황에 이 심각한 문제를 따져 주는 또 다른 트랙에서의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되고. 언론 자유가 실질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 그리고 언론 자유 자체가 말살당할 뻔했던 그 포고령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편집국 자체를 군홧발 아래 놓겠다고 이야기했던 계엄사령부 포고령 이 부분에 대한 절박하고 절실하고 처절한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적 고민들이 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절차입니다. 국회에서 해야 되는 절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말살될 뻔한 언론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한들, 권리들을 짓밟으려 했던 계엄군의 포고령 3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따지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현안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신동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제가 반복됩니다만 저희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80년대 광주의 비극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단 80년대의 언론 상황 지형과 지금의 언론 지형을 동일선상에 두고 그때와 같은 상황이라고 자꾸 주장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저도 가슴 아픕니다만 맞지 않고요.

두 번째, 포고령의 문제는 연합뉴스 사장을 불러서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요. 연합뉴스 사장이 계엄이 해제되지 않아서 그 포고령에 따라서 그런 기사를 내보낸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양문석 위원님 같은 분은 오랫 동안 저와 분야는 다르지만 언론계의 자유를 위해서 노력해 온 동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론 자유를 지키는 방식이 양문석 위원님이 주장해 왔던 언론 자유를 지키는 방식과 지금의 말씀은 조금 결이 다르다. 이게 정치적, 제가 정치적 상황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그 반대 방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연합뉴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상파 3사, 적어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신문사를 제외한 지상파 3사도 수많은 혼란과 혼동 속에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뉴스를 양산하고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물론 양문석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비록 국회가 이것을 꼭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문석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 국회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우리가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언론인들을 불러내서 양심의 십자가를 놓고 그 위를 밟게 만드는 것,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지요. 실탄이 지급됐다는 문제를 두고 따질 때, 연합뉴스 사장에게 물었을 때 ‘저는 몰랐습니다. 출고 부서에서 출고한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편집국장 불러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런 기사를 출고하게 됐느냐’ 물어봐야 되겠지요. ‘저도 취재기자가 그렇게 쓰라고 해서, 기사를 가져와서 그냥 출고만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취재기자를 부르는 겁니다.

언론 자유의 가장 큰 적은 기사를 쓴 사람들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쓴 사람들은 법정에서도 취재원을 밝히지 않을 일종의 특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양문석 위원님이나 민주당 위원님들 주장하는 것처럼 그 큰 대의에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언론인 한 명 한 명을 불러서 그 앞에 양심의 십자가를 두는 것이 과연 우리 헌법 정신에 맞는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민주주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가 이런 점을 우리가 좀 더 냉정하고 냉철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제가 더 이상 양문석 위원님 말에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수 의사진행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슷한 말씀일 것 같아서 비슷한 말씀을 하실 것으로 예상되는 분은 제가 드리지 않고 조금 정리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말씀과 관련된 것이지요?

○양문석 위원 예.

○위원장 전재수 충분히 말씀하셨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하셔야 되겠습니까?

○양문석 위원 짧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저도 그만할게요.

○양문석 위원 나도 짧게 하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저는 다른 내용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러면 진종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듣고 하도록 합시다.

○진종오 위원 야당 위원님들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 말씀이 틀렸다,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드린다기보다도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게 뭔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드는 질문이. 왜 이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상임위에서 문화·체육·관광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방향성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긴급 현안질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부기관들도 와 있는데 긴급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되지 지금 옛날얘기를 꺼내고 현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은 저는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타이밍에 끊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오늘 상임위 또한 양쪽 간사님들끼리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더더욱 우리가 나라를 걱정하고 그런 부분에 맞는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강유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왜 열렸느냐, 윤석열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으로 인한 문화·체육·관광업계 피해 그리고 혹시 문체부 내란 동조 실태가 있는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는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보자면 국민의힘 문체위 소속 위원들 중에서 정말 이 자리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양심의 십자가라는 말을 마침 해 주셨네요. 신동욱 위원 얘기인데요. 한 보도에 따르면 12월 4일 0시 45분경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에 있었음이 사진으로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속 보도에 따르자면 본회의장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나눴다는 점도 있습니다. 추정되는 시간은 꽤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국방위원회에서 '4일 0시 30분에서 40분 사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졌다고 의원들을 끄집어 내라라는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시간과 비슷합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두 차례 통화하며 시간을 더 달라라고 지연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언론이 인터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동욱 위원은 현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행적에 대해 사실 확인도 없고 입장을 요구하는 언론사 취재에도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심의 십자가라는 표현처럼 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회 담벼락을 넘었던 수많은 동료 의원들이 있습니다. 최형두 의원께서는 마산에서 올라와서 표결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담을 넘은 것으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계엄 때문에 일상을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 진상조사를 위한 지금 이 자리에 양심의 십자가를 걸고 신동욱 위원께서 언론의 취재에도 응하지 않았던 그날의 행적 그리

고 사실 확인, 입장 표명을 먼저 해 주셔야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전재수 위원장께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 그리고 사유를 혹은 사죄를 표명하는 신상발언을 요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신동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국회에 면책특권이 있지만 이제 이쯤되면 진짜 막 나가자는 거지요.

첫 번째, 언론의 취재에 응하지 않은 적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제 눈 한번 보세요.

제가 언론의 취재에 응하지 않은 적 없습니다.

○강유정 위원 의사진행발언이면 위원장님에게 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요청 오는 언론마다 제가 소상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무슨 특전사령관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얘기가 왜 이 상황에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일 밤에 저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계엄은 막아야 하는 계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본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저희 당 상황이 수많은 의원들이 12시를 전후해서 국회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담을 넘어 와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담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분도 있고 지금 담을 넘어야 되는 상황인지를 불명확했던 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요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치인으로서 역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본인이 정리할 문제입니다. 다른 국회의원이 왜 너는 담을 넘지 않았느냐라고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쨌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우리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정말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집에서 늦게 출발, 대개 비슷하게 출발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와 있어서 곧 계엄이 해제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의결정족수가 거의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부 저희 당 의원들과도 통화를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와도 통화를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니 본회의장으로 오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저희 당 의원들도 다 들었습니다. 스피커폰을 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강유정 위원님은 무슨 근거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도대체 알 수가 없고요.

○조계원 위원 전화를 안 받았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신동욱 위원 제가 전화를 다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자 전화를 다 받습니까? 조계원 위원님은 기자 전화 다 받으세요?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묻는 것 아닙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신동욱 위원** 그만하세요.

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아직 덜 끝났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잠시만요.

신동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전화를 어떻게 다 받습니까?

그리고 제가 정확한 시간은 모릅니다만 계엄군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바깥에 대단한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이미 제가 보건대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다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곧 계엄이 해제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 당시 상황에서 그쪽 앞에 있는 소파하고 의자를 두고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다급한 마음에서 우리 의원들이 적어도 이 정도보다는 더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우리 당에 문제가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깥 상황을 살피면서 저희 당 의원에게……

웃지 마십시오, 김윤덕 위원님. 전화를 해서 들어오십시오라고, 들어오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상황에서 국회의장님이 땅땅땅 두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저희 당의 모 당직자가 소파가 있는 그 위치에 있었던 것이고, 그게 다입니다. 그것을 제가 우리 당의 내부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구구절절이 일찌감치 설명을 안 드린 것일 뿐이고.

그런데 강유정 위원님 말씀은 팩트가 너무 많이 틀리잖아요. 아무리 여기가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국회 회의장이지만 적어도 상대 당 위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있다면 저런 불확실한 말씀을 저렇게 막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잠시만요, 제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있어서는 안 되는 우려에서 제가 앞서 의사진행발언하면서 말씀드렸던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그다음에 신동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오늘 이 긴급 현안 주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듯합니다. 우리가 이 상임위에서 더 이상 국민들 부끄러워할 일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데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사항은 우리 상임위에서 다룰 일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제를 갑자기 벗어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얘기를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국민들한테 보여 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앞서도 주제를 제한하자, 중인도 차분하게 우리가 검토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오늘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자칫 잘못 나가서 우리가 긴급 현안질의를 해야 되는 대한민국의 관광산업이나,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 사회에 아직도 굉장히 많은 상흔들이 있고 온몸에 몸살이 나서 그게 어디까지 번져 갈지 모르는데 또 우리끼리 여기서 모여 가지고 상임위와는 주제가 조금, 다소 벗어나는 이런 논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사님하고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현안질의가 진행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건을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여야 간의 합의도 있고 그다음에 확인돼야 될 일들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만약에 이게……

우리 위원님들 조금 차분해지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계속 이 자리에서 현안질의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사과 요구합니다.

○**양문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재수** 잠시만요.

임오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임오경 위원입니다.

일하는 국회, 국회법에 의거해서 상임위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인 채택, 청문회 등등 문제가 있어 개최할 수도 있고 또 질책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현장의 고충도 듣고 재발방지도, 막아 줄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렇게 저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말씀들 중에서 줄 세우기, 무차별적인 발언 등 상당히 듣기 거북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언론 장악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었나요? 이것에 대해서 국민도 알고 전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도 알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부분들에 있어서 위원장님이 받아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여야 간사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라면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유인촌 장관님에게 꼭 사과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촌 장관 이하 문체부 직원들 태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위원장님, 유인촌 장관의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여야 합의로 12월 11일 저희는 상임위 전체회의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엄령을 통해서…… 여당 위원님들도 12월 11일 날 전체회의에 참여하지 않으셨고 또 장관은 여야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불출석하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 여야 합의하에 전체 상임위가 잡혀 있었습니다. 누가 감히 여야 합의가 없이 잡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체부 유인촌 장관에게 사과를 반드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날 피감기관들, 콘진원, 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 다 참석했지만 장차관들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돌려보냈던 사안들 저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문체위 상임위가, 전체회의가 여야 합의 없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차관이 참여 안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계엄령을 통해서 현장의 문제를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고 이것을 축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 빠르게 경청하고 그 위치에서 일을 하라고 지금 장차관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불출석한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위원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12월 11일 회의는 11월에, 이미 사전에 잡혀 있는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불출석 사유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불출석하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장관에게 다시 한번 그것의 답변을 듣고 사과를 요청

드리고요.

여기 이 자리는, 장차관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위원장님이 강하게 질책 한번 해 주십시오. 대통령에게 충성하라고 임명된 것 아닙니다. 그 자리는 국민에게 충성하라고,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충성하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사태에서도 대통령을 운운하면서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 장관님을 보면 진짜 한심한 생각이 들고요.

이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나라 경제는 환율 폭등, 주가 폭락, 내수 위축으로 빨간불이 켜졌고 특히 사상 초유의 여행 위험국 지정으로 인해서 여행업계, 항공업계는 주가가 폭락하면서 직격탄 맞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는 하루빨리 국회와 대책을 논의해서 국민들을 위기에서 구해 달라고 저희가 장차관들, 피감기관들 다 12월 11일 날 참석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당연한 요청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것에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장관의 사과를 바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신동욱 위원 아니, 저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동안……

○신동욱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장 전재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신동욱 위원 예, 꼭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그러면……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공정하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아니, 저 1분만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들으신다면,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면 그것도 들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전재수 잠시만요, 제가 조금 더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 한 치라도 사실과 다르다면 의원직 사퇴하겠습니다. 강유정 위원님 말씀 속기록 삭제해 주시고 사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양문석 위원님.

○양문석 위원 진종오 위원님 아까 옛날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지요? 정말 그 옛날이야기, 옛날의 그 계엄령이 교과서에서 현실로 툭 튀어나온 며칠 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옛날이야기로 치부하기에는……

만약에 쿠데타가 성공을 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국회의원들을 어디에 감금할 것인지 계획까지 다 잡아 놓았습니다.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논의를 하는 거거든요. 옛날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신동욱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80년대 언론 지형과 다르다, 도대체 뭐가 다르지요? 계엄군이 총칼을 들고 국회에 난입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대통령이 명령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80년 광주와 도대체 뭐가 다르지요?

두 번째,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요? 도대체 언론 자유는 가짜뉴스 살포의 자유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가짜뉴스 살포한 연합뉴스의 보도를 따졌던 것

이고 그리고 곳곳에서 발생했던 거짓 보도를 따졌던 것입니다.

지금 신동욱 위원이 강유정 위원의 이야기에 발끈하는 이유가 뭐지요?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신동욱 위원** 사실관계가 아니니까 발끈하는 거지요.

○**양문석 위원** 그렇지요. 사실관계가 아니니까 발끈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트랙이지만 사실관계가 아니니까 발끈하는 부분, 이 부분이 언론 자유입니까! 당연한 일이지요. 이게 언론 자유 침해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신동욱 위원의 이중잣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박정하 위원** 양문석 위원님 그만하세요. 자제하세요.

○**양문석 위원** 잠깐 있어 보세요!

언론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요?

○**신동욱 위원** 무슨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양문석 위원** 보세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발끈……

○**신동욱 위원** 기사 하나가 틀리다고 관계자 다 불러야 됩니까?

○**양문석 위원** 그 내용을 강유정 위원한테 따질 일입니까? 그 기사를 쓴 기자 회사에다가 따져야지.

○**신동욱 위원** 뭘 따져요. 제 신상의 문제를……

○**양문석 위원** 제발요, 이중잣대로 세상 거꾸로 뒤집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어디서 그런 못된 이야기를 갖다가 여기서 함부로 펼칩니다! 본인 문제는 언론 자유가 아니고 남의 문제는 언론 자유 문제입니까!

○**위원장 전재수** 양문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민형배 위원** 다른 얘기 할게요.

○**위원장 전재수** 잠시만요.

○**양문석 위원** 어디서 이런 못된 짓을 함부로 이야기를 해, 국회에서.

○**위원장 전재수** 잠시만요.

박정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임오경 간사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판단하셔서 말씀 주시는데 하나 정리할 것은, 지난 11일 날 여야 간 합의해서 잡았던 의사일정은 국감 동안에 있었던 증인에 관한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그사이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 비상 계엄이라는 일이 생겼으니까, 그것이 11일 날 현안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하나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임오경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전체회의가 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요청한 것……

○**박정하 위원** 두 번째는 위원장님께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의사진행발언이 계속 진행되면 우리가 더한 일들이 생기니까 빨리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유정 위원** 제가 신상발언해야 되겠습니다,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하는데 틀린 부분이 없기 때문에요.

○위원장 전재수 그러니까 강유정 위원님하고 신동욱 위원님 사이의 그 말씀이 있는데……

민형배 위원님, 그동안 나왔던 범주 내의 의사진행발언이지요?

○민형배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전재수 아닙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인가요?

○민형배 위원 아마 관련이 없지는 않은데……

○위원장 전재수 그러면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강유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속기록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관계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12월 4일 0시 45분경에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에 있었는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부분에……

○신동욱 위원 본회의장에 있지 않았다니까요.

○강유정 위원 사진이 있잖아요, 사진이.

○신동욱 위원 아니, 그 전에 찍힌 사진이고요. 표결할 때 본회의장에 있지 않았다니까요, 내가.

○강유정 위원 아니, 표결을 안 했…… 제가 지금 말했잖아요, 0시 45분경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이라고. 속기록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속기록 확인하시고 사실관계가 맞는지 아닌지 따져 주세요.

오마이뉴스는 '16일 신 위원에게 당시 상황을 물고자 연락을 계속 시도했지만 그의 전화기는 꺼져 있는 상태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해제에 동의하신면서 계엄 해제 의결에도 참석 안 하셨어요. 투표 안 하셨습니다. 탄핵, 상설특검 결의안, 신속체포 결의안 전부 반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제가 요구한 거였지 제가 어디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지금……

그게 오히려 사실관계 호도하는 겁니다.

○신동욱 위원 본회의장에 있으면서 계엄……

○강유정 위원 두 번째, 본회의장에 오시는 것이 좋겠다고 통화했으면서 표결 왜 안 했는지에 대한 해명을 제가 요구했던 거고요. 요즘에는 SNS나, 본인이 충분히 의견 밝힐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12월 3일 이전으로는 전혀, 신동욱 위원의 SNS가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것은요 해명이었습니다. 해명이었고 전혀 다른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어디서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지, 속기록 확인하시고 거기서 축자적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선택하셔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 이후에 사과 요구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똑같이 읽어 드릴게요.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드린 거예요. 그게 왜, 어디가 사실관계가 잘못됐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잠시만요, 오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인 제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한국정책방송원 추동진 편집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뒤에 배석을 하고 계시네요.

먼저 추동진 편집팀장을 오늘 중인으로 추가하는 문제 하나가 지금 있고요.

두 번째는 연합뉴스 사장, 편집국장, 감사실장의……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연합뉴스 사장, 편집국장, 감사실장을 중인 채택해서 현안질의를 해 달라는 요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언론인과 언론 유관단체분들을 모시고 최근 비상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언론의 자유라든지 계엄과 관련된 언론인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기 위해서 언론 청문회, 현안 청문회…… 현안 청문회지요, 언론 청문회가 아니고. 현안 청문회를 개최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재원 위원님이 최재혁 비서관에 대한 청문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인촌 장관의 불출석 문제에 대한 사과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동욱 위원님과 강유정 위원님 사이에 신상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동진 편집팀장님 오늘 중인 채택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현안 청문회 문제는 여야 간사 위원님들 사이에 추후에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재원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최재혁 비서관 청문회도 여야 간사 위원님들 사이에 협의를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인촌 장관의 불출석 문제는 유인촌 장관이 좀 이따가 현안보고를 하실 때 아마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지난 12월 11일 여야 사이에 상임위 개최가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안보고를 하실 때 적절한 입장 표명이 있지 않으실까 위원장으로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동욱 위원님, 강유정 위원님 이것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장인 제가 두 분 사이에 좀 해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이 정도까지 해 주시고요.

○**김윤덕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전재수** 잠시만요, 먼저 해야 될 것 좀 하고 진행을……

○**김윤덕 위원** 아니, 이 문제 매듭 하기 전에 매듭이 안 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위원장 전재수**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도록 하고요.

김윤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위원** 제가 회의에 늦게 들어온 것은 정말 잘못했는데요. 저 와 가지고 앉아 있다가, 미소 지었다가 신동욱 위원님 말씀 중에 ‘웃지 마세요’ 이런 굉장히 감정적인 말을 하셨는데……

○**신동욱 위원** 죄송합니다. 그건 제 얘기에 대해서 웃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드린 거고요.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김윤덕 위원** 아니, 말씀에 웃어도 안 됩니까?

○**신동욱 위원** 아니요, 그런데 제가……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웃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 자체를 한 것을 사과해야지요. 그렇지요?

○**신동욱 위원** 예, 제가 사과드립니다.

심각한 상황에서 제 얘기를 들으면서 마치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 말씀 드린 것

사과합니다. 제가 성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위원장 전재수 자, 일단……

○임오경 위원 아니요, 거기다 지금 넣어야 될……

○위원장 전재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임오경 위원 예, 넣어야 될 문제……

○위원장 전재수 예,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 12월 11일 날 저희가 피감기관들 요청이 있었는데 무슨, 누구의 백 믿고 참석하지 않은 피감기관이 또 있었습니다. 오늘 KTV 원장인 이은우 원장에게도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피감기관들이 그래도, 장차관이, 문체부가 참석하지 않았지만 다른 피감기관들은 그래도 일단 국회 출석을 위해서 국회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V는 국회 자체를 오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백, 도대체 무슨 백이 그렇게 커서 이은우 원장은 12월 11일 날 오지 않았는지 이은우 원장에게도 답변 듣고, 사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현안질의하면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고, 마지막 의사진행발언 듣고 제가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위원장님 정리 쪽 주신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 동의하고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이 상황을 정리해 나가자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참석한 KTV 관련 실무자가 배석자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도 우리 위원님들 간에, 우리 문체위 상임위하고는 별건으로 진행되는 건도 있고 해서……

만약에 회의가 이런 것들이 저희 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오늘 현안질의에 저희 당은 계속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오늘의 현안질의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자리를 이석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이 건이 정리돼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국가가 바로 정상화되고 우리는 문체위 차원에서 어떤 일들을 더 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고 자칫 정쟁의 소지를 가지고 흐를 수 있는 거라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민주당 위원님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저희가 더 이상의 현안질의에 응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부 위원 퇴장)

○위원장 전재수 박정하 간사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오늘 한국정책방송원 추동진 편집팀장을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정책방송원의 많은 분들, 네 분인가요? 네 분이 이미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고 추가로 추동진 편집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여야 사이에 크게 이견이 없을 것으로 위원장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연합뉴스 또 언론인, 언론 유관단체의 여러 증인들과 관련된 현안 청문회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야 간사 위원님들 사이의 추후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족수가 안 되는데요, 새롭게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을 상정하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족수가 안 됩니다.

○임오경 위원 그건 잠깐만, 이따가 하시지요. 김재원 위원님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시지요.

○위원장 전재수 그래서 정족수가 될 때까지 이 증인 채택의 건은 잠시 미뤄 놨다가……

위원님들께서, 한 분이 더 필요한데, 그러면 긴급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은 의결정족수가 되는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관광 분야와 K-콘텐츠 분야의 피해 현황 및 대책과 관련해서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인촌 존경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계엄 사태로 인해 많은 혼란과 불확실성이 초래됐습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정책 추진 여건 또한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관광 및 콘텐츠업계 동향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 분야입니다.

현재는 점차 진정 국면에 들어가는 상황이나 방한 관광시장의 단기적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 여행 안전 여부 문의가 증가하고 신규 여행 예약 문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제회의 개최 문의도 감소하여 한국 여행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문체부는 국내외 여행업계와 관광객에게 한국 여행이 안전하고 일상적이며 원활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국 가운데 여행경보 발령 국가는 없습니다.

또한 민관 합동 관광상황반을 가동하여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업계 간담회 또 관광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계부처 협조를 통하여 전자여행허가제 한시면제조치가 연장되었으며 이를 관광업계에 즉시 알려서 방한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문체부는 전 세계 32개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와 함께 동계 시즌 방한 유치 특별 캠페인을 긴급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1월 코리아 그랜드세일을 개최하고 K-관광 로드쇼를 조기에 실시하며 방한 관광 집중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 홍보와 해외 광고 캠페인 또 주요국 외신 취재를 병행하여 전방위적으로 한국 관광을 해외에 알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콘텐츠 분야 역시 계엄 사태 직후 일부 공연에서 티켓 예매 취소 사례가 발생하고 국내 중시 하락으로 인해 콘텐츠 관련 기업 주가는 하락하는 등 일시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준으로 해외 뮤지션들의 내한 공연을 비롯한 대중음악 공연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콘텐츠기업 주가는 계엄 선포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콘텐츠 수출 분야 역시 아직까지 특이 동향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대중음악 업계 및 협회, 단체 등에 연말 시상식을 포함해 기존 계획된 행사들의 정상적인 개최를 요청하고 있고 또 콘텐츠진흥원 해외 비즈니스센터와 실시간 보고 체계를 구축하여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수출 피해에도 미리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콘텐츠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관련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유인촌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기현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11시09분)

○위원장 전재수 조금 전에 이기현 위원께서 긴급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해서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국회법 제71조 규정에 따르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의자 외 1인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서면동의서에 임오경 위원의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가 의제로 성립됐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71조 및 제77조 의사일정 변경 규정에 따라서 긴급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오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잠시만요.

3. 긴급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

(11시10분)

○위원장 전재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긴급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실시 예정인 긴급 현안질의와 관련해서 국회법 제129조제1항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증인은 추동진 한국정책방송원 편집팀장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예정된 긴급 현안질의에 위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2. 긴급 현안질의

○위원장 전재수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임오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임오경 위원 예.

○위원장 전재수 예.

○임오경 위원 의사진행발언에 있어 위원장님에게 제가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장님께서 장관에게 현안보고와 함께……

○위원장 전재수 아,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12월 11일 날 관련된 입장을 표명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장관께서는 그것에 대한 표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12월 11일 날 간단하게 현안질의로 끝났어야 될 사안을 오늘 이렇게 증인으로 요청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부를 증인으로 요청해서 이렇게 현안질의를 합니까? 오늘 이 상황을 만든 것은, 유인촌 장관 때문에 오늘 이렇게 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사전에 장관께 현안보고 및 의사 표명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안보고만 하고 지금 자리로 이동하시는 것은……

아니, 무엇이 그렇게 대단해서 지금 그렇게 행동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도 듣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지금 왜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12월 11일 끝났어야 될 현안질의를 하지 못한 것 그리고 오늘 이렇게 확산되어서 크게 만든 것은 모든 게 다 장관님의 책임입니다. 다시 한번 장관님의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유인촌 장관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현안보고하실 때, 12월 11일 여야 합의가 돼서 상임위가 개최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불출석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을 현안보고를 하실 때 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깜빡하신 것 같은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인촌 저는 현안질의하실 때 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서요. 조금 이따가 아마……

○위원장 전재수 지금 하시지요.

○증인 유인촌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출석하게 된 건 당시 너무나 여러 가지로 혼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상임위 불출석 자체를 저는 사실은 거의 하지를 않는데도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여야 합의가 돼서 12월 11일 날 상임위 전체회의가 예정이 돼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님께서 불출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고 덧붙여서 국회가 여야 합의가 되면 당연히 출석을 하셔야 되겠지만 정부는 정부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야 합의가 되건 안 되건 또는 야당 단독으로 하든 여당 단독으로 하든 국회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것은 응당 정부로서는 국회에 출석하셔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말씀들을, 다른 부처 장관님들도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것은 정부가 여야 싸움에 끼어드는 겁니다.

정부가 여야 싸움에 끼어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국회에서 여야가 싸우는 것은 늘 있는 일이고 싸움을 통해서 더 좋은 타협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싸움에 정부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야가 싸우든지 말든지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성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중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중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일괄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유인촌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석자들께서는 선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촌 장관님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인촌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긴급 현안질의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증인 유인촌

증인 용호성

증인 장미란

증인 황성운

증인 최보근

증인 유병채

증인 김현준

증인 채수희

증인 윤양수
증인 김정훈
증인 김근호
증인 이은우
증인 박준석
증인 이승훈
증인 이찬구
증인 이성구
증인 추동진
증인 유현석
증인 서영충
증인 윤두현

○위원장 전재수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만 원칙은 7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유인촌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연락을 못 받으셔서 국무회의에 참석을 못 하셨지요?

○증인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계엄 해제 결의 요구안이 채택된 이후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셨지요?

○증인 유인촌 예.

○조계원 위원 그때가 몇 시였습니까?

○증인 유인촌 새벽 한 3시 30분쯤 된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때 혹시 발언하신 건 있으십니까?

○증인 유인촌 뭐 특별난 발언은 없고요. 그냥 계엄 해제에 대한 얘기를 국방부장관께서 하시고 이견이 있나 없나 물어보고 그냥 해제하는 걸로 다 동의하고 끝난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 전체 국무위원이 다 동의하셨습니까?

○증인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저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위헌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것이라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증인 유인촌 글쎄요, 저는 계엄 단어 자체에도 거부감이 있고 만약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원 위원 절차적으로도 위법이 확실하지요, 반헌법적이고?

○증인 유인촌 그것까지는 뭐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조계원 위원** 국무총리의 그리고 국무위원들의 부서 절차 그리고 국회 통고 절차 이 모든 것들이 절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증인 유인촌** 예.

그건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내용을 전혀 알지를 못 했기 때문에, 물론 연락을 못 받아서 참석도 못 했지만 후에 하여간 알게 돼서 그런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헌법 제77조 그리고 계엄법 제2조와 4조를 보면 윤석열이 12월 3일에 발표한 비상계엄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 국헌을 문란케 한 위헌이라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증인 유인촌** 나름대로 법 기관에서 제대로 다 판단해서 발표를 하시겠지요.

○**조계원 위원** 그때 계엄군이 투입되고 했던 행위 자체가,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막은 행위 자체가 국회의원들의 계엄에 대한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명백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증인 유인촌** 아니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 뭐 제가 그런 판단을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계원 위원** 아니, 이건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답을 못 하시겠다는 겁니까?

○**증인 유인촌** 국무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하고 혼란스럽게 된 것에 대해서 그냥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사실.

○**조계원 위원**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답변을……

○**증인 유인촌** 인정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건 뭐 이제 법적으로 다 판단을 하시겠지요. 제가 먼저 그런 판단을 해 드리기에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상식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물어본 사항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국회의 계엄 해제 동의안 표결을 방해한 행위,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그다음에 국회 본청에 군인들이 투입돼 가지고 의결을 방해하려고 한 행위가 명백히 주어졌는데 그것은 국헌을 문란하게 한 행위다 이 판단조차도 장관으로서 못 한다는 겁니까?

○**증인 유인촌** 원래 계엄 자체는 저도 물론 당연히 반대하고요.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관님께서는, 국가 대변인 자격을 문체부장관이 갖는 거지요?

○**증인 유인촌**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님께서 이것 직접 발표하셨지요?

○**증인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 내용 장관님께서 작성하신 겁니까?

○**증인 유인촌** 작성은 아마 총리실 쪽하고 국조실 뭐 이런 데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 유병채 실장님 나와 계시지요?

이 문안은 총리실에서 온 것 그대로 장관님께 드린 겁니까?

○증인 유병채 장관님 발표용으로 발표 전에 일부 표현이나 내용만 좀 정리해서 장관님께서 발표하신 겁니다.

○조계원 위원 어떤 부분을 표현을 바꿨습니까?

○증인 유병채 문장이나 이런 부분이 발표에 좀 매끄럽지 않거나 그런 부분은 조금……

○조계원 위원 윤문만 했다 이거지요?

○증인 유병채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장관님, 내용에 보면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 버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스무 명 가까운 고위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증인 유인촌 사실은 저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호소한다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조계원 위원 장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증인 유인촌 그러니까 동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건 그 당시로서는 국정 자체가 운영되기가 좀 어렵다고 국무회의에서 판단을 다 해서 그런 문안으로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장관들이 없으면 국정 운영이 불가능할까요, 국무위원들이 없으면?

○증인 유인촌 아니, 그게 국무위원 의결정족수가 있으니까요. 15명……

○조계원 위원 장관님께서는 스무 명 가까운 고위공직자로 표현하셨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주로 국무위원급의 고위공직자로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탄핵된 분들의 10여 명은 대부분이 검사들이었습니다, 비위 검사들. 국정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하등 없고요. 그리고 설사 장관이 공백 상태라 하더라도 차관들이 있고, 국정의 공백이 생길 이유가 없는데 윤석열의 담화문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 지금 사과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증인 유인촌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요, 이것은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건 아니고요. 단순히 국정의 혼란스러운 점을 조기에 안정시키자라는 뜻의 호소문으로 그것 외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게 발표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계원 위원 아니,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부결되고 나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명백하게 탄핵소추안 부결의 목적을 떠고 발표한 호소문이라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증인 유인촌 그날 국무회의에서 어쨌든 국무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고요. 또 특히 뭐 참석하셨던 다른 분들은 아마 이제 조사에 응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하여간 그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실은 제가 정부대변인 역할을 그동안에는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도 다른 일에 지장을 많이 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어려운 상황이 돼서

직접 호소문을 좀 국민들께 낭독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하게 된 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하여간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자체가 사실은 뭐 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계원 위원 그 호소문의 내용이 명백하게 윤석열의 내란을 비호하고 그리고 결국 내란 선전·선동에 부합하는 행동의 발언들이 담겨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작성하지도 않은 것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증인 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그 호소문을 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건 단순히 그냥, 그것을 지지하거나 동의를 하려고 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좀 빨리 국정이 안정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국정 안정을 바라는 의미라 하더라도 윤석열과 똑같은, 윤석열이 지적한 게 됩니까? 탄핵을 지적했고 예산 감액을 지적했습니다. 둘 중 하나를 강력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조, 철저하게 동의하고 부합하는 행위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계엄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형사소송법 90조에? 모르십니까?

○증인 유인촌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거기에도, 형사소송법에 내란죄로 인정이 되고요. 선전·선동을 한 경우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명백한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증인 유인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아직까지도 파악을 못하신 겁니까?

○증인 유인촌 아니, 이 자체가 이미 그런 의미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계원 위원 그러면 왜 사과했습니까, 어제도 인터뷰하면서 사과를 했던데?

○증인 유인촌 그것은 어쨌든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졌고 실제로 여러 가지 경제, 사회, 문화, 전체적인 면에서 그동안에 해 왔던 일들이 상당히 다시 좀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를 드린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계원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2·3 위헌적 계엄 사태는 내란죄라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 기록에 남는 거니까 신중히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인촌 글쎄요, 그런 부분을 제가 판단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지금 모든 것을 판단을…… 상식적인 판단조차 못 하고 있어요. 국회 계엄 해제 결의를 막은 국현 문란 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판단을 못 한다고 그리고, 이미 내란수괴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돼 있고 조사 중인데 그에 대해서도 전혀 판단을 못 하겠다 하시고.

○**증인 유인촌** 아니,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해제됨과 동시에 아마 전달이 돼서 해제가 된 거로, 의결이 다 된 거기 때문에……

○**조계원 위원** 그리고……

○**위원장 전재수** 부족한 부분은……

○**조계원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

한예종에 대해서 11시 30분에 인가 통고가 됐더라고요.

계엄 포고령이 언제 내려진지 아십니까?

○**증인 유인촌** 저는 10시 반쯤……

○**조계원 위원** 포고령은 11시 27분에 내려졌고요. 불과 3~4분 사이에 국무총리실 당직 사령실에서 연락을 해서 ‘한예종을 폐쇄조치하라’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그와 관련해서 보고받은 것 있으십니까?

○**증인 유인촌**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한예종은……

○**조계원 위원** 국무총리실은 계엄사의 포고령과 거의 동시에 국무총리는, 지금의 대통령권한대행은 계엄이 자신이 봤을 때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정당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국무총리실은 계엄에 맞춰서 움직였습니다.

계엄을 실행하는 기관으로서 작동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유인촌** 아마 당직 총사령실에서 전 정부부처나 소속기관으로 그게 내려간 것 같거든요. 그런 건 아마 비상적인 상황이 생겼다고 그 당직사령은……

○**조계원 위원** 제 말은 이미 계엄을 실행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계엄 포고령 발표와 거의 동시에 한예종에 대한 폐쇄령이 내려졌던 거냐 그겁니다.

○**증인 유인촌** 그런데 한예종에 따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부처를 비롯한 그 소속기관 전체로 아마 그게 내려갔을 거예요.

○**위원장 전재수**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윤석열의 탄핵소추 표결을 이틀 앞둔 12월 12일 확대기관장회의 열렸습니까?

○**증인 유인촌** 제가 지금 날짜를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강유정 위원** 모르시면 안 되지요.

○**증인 유인촌** 아마 확대기관장회의를 했을 겁니다.

○**강유정 위원** 열렸습니다.

○**증인 유인촌** 예.

○**강유정 위원** 올해 몇 번째 확대기관장회의입니까?

○**증인 유인촌** 저희들이 거의 매달 한 번씩 합니다.

○**강유정 위원** 처음입니다, 소속기관장과 공공기관장을 다 함께 소집한 회의는.

○**증인 유인촌** 매달 합니다.

○**강유정 위원** 소속기관장과 공공기관장을 함께 소집한 회의는 처음입니다.

○**증인 유인촌** 나눠서 합니다, 나눠서.

○**강유정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함께 소집한 회의 처음입니다.

○**증인 유인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함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강유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회의가 처음입니다. 제가 사실관계 잘못 얘기하지 않습니다.

○**증인 유인촌** 예.

○**강유정 위원** 제출한 자료에 기관 주요 현안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일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3호 내용, 차관님 뭡니까? 용호성 차관님, 더 잘 아시지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3호,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의 경우 회의록 남겨야 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차관님, 알고 계시나요?

○**증인 용호성**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런데 왜 안 남겼습니까?

장관님, 왜 안 남겼습니까? 회의록이 없습니다.

문체부에 확인했더니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행령 위반, 법 위반이라는 것 인정하세요? 회의록을 안 남겼어요.

○**증인 유인촌** 거기까지는 저희는 생각을 못 했고요. 단지 그날 기관장들이 기관을 좀 안정적으로 잘 운영해 달라고……

○**강유정 위원** 이건 그냥 짤막한 대답을 원하는 질문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3호를 위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회의에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회의의 회의록은 남기지 않았지만.

○**증인 유인촌** 그날 전반적으로 각 기관이 동요되지 않고 운영을 제대로 잘 해 달라 그런 부탁하는 자리였습니다.

○**강유정 위원**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회의록을 남기라는 법령이 있는 겁니다. 그 정도의 말씀이셨다면 왜 회의록을 안 남겼는지 더욱 의심이 되는데요. 그렇지요?

○**증인 유인촌** 글쎄요, 저는……

○**강유정 위원** 왜 회의록을 안 남겼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인사권 신속하게 행사하겠다는 발언했습니까?

○**증인 유인촌** 별로 기억이 없는데요.

○**강유정 위원** 기억이 없는 겁니까?

○**증인 유인촌** 예.

○**강유정 위원**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증인 유인촌** 아마 그런 인사권에 관한 문제 때문에 회의를 소집한 게 아니고요, 혼란스러운 상태를 빨리 안정시키자고 회의를 소집한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강유정 위원** 16일에 116개 예술단체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고발 당하셨지요?

○**증인 유인촌** 성명서 내신 것 말하는 건가요?

○**강유정 위원** 혐의로 고발을 하겠다라고 성명까지 발표도 했고요. 고발도 지금 조치한

다고 했는데 보고가 안 됐나 봅니다.

○**증인 유인촌** 아, 그거 들은 것 같습니다.

(전재수 위원장, 임오경 간사와 사회교대)

○**강유정 위원**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정부대변인으로 역할한 것 자체가 자칫하면 형법 90조에 의해서 3년 이하가 아니라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죄입니다. 죄저가 3년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12·3 내란에서 단순히 사전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자유롭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장관께서 인사권은 가장 소극적으로 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상황들이 규명되기 전에는.

왜 이런 우려를 하냐면 제가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장관이 회의에서 특정인을 언급하면서,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요, 성 누구누구처럼 해라라고 노골적으로 말씀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관선이사를 내려보내서 이사장을 바꿔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마 회의록이 있었다면 남겨져 있었겠지만 회의록이 없어서 저는 전언으로만 들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의혹이 있다라는 거고요.

○**증인 유인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제가 혹시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같은 엄중한 시기에 인사권을 매우 조심해서 행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상 사표 제출은 하셨지요?

○**증인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강유정 위원** 지금 수리되지 않은 상태인 거지요?

○**증인 유인촌** 그렇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 상태인데 인사권 남용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지금 여러 임기제 기관장들 자리가 인사를 기다리고 있긴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증인 유인촌** 예.

○**강유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소극적인 인사를 했으면 하는, 아주 조심해서 인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저는 시간을 조금 이따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질의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1분만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예, 하십시오.

○**민형배 위원** 제가 장관실에, 의원실에서 계엄 시점부터 해제 시점까지 여섯 시간 정도가 되는데 이때 통화기록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했는데 개인정보라 제출하기 어렵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 국무위원의 행적, 국무위원의 네트워크, 국무위원의 커뮤니케이션은 저는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의 마지막 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통신기록 자체가

불가능하시면 그냥 이때 뭐, 이때 뭐 이렇게 시간별로 무슨 통화를 했다 이 정도만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 유인촌 계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형배 위원 예, 계엄.

○증인 유인촌 그러니까 11시 이후부터 해제 때까지?

○민형배 위원 10시 23분부터 4시 계엄해제 국무회의가 끝날 때까지 통화내역.

○증인 유인촌 예.

○민형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국무회의 끝날 때 장관님이 뭘 어떻게 하셨는지 끝난 이후의 그 행적 이것만 좀, 그냥 간단하게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증인 유인촌 예.

○민형배 위원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장관님, 2008년에 저거 기억나세요?

○증인 유인촌 뭐 했던 것 이런 기억은 납니다.

○민형배 위원 ‘이제 촛불 끄고 일터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10일에 정부대변인 자격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시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들 나오셨습니다마는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입니다’. 저 위에도 민생 아래도 민생, 위에도 일터로 돌아가라,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다……

저게 혹시 무슨 프로토콜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증인 유인촌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 장관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정부대변인으로서 장관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요?

○증인 유인촌 실체적으로 의지를 넣어서 작성한 문안은 아니고요.

○민형배 위원 그러면 결국 장관님이 발표하신 거라 장관님 책임인 거고, 장관님이 하신 거지요?

○증인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이게 참 절묘하게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란수괴로 지목된 윤석열의 그동안의 발언 내용이나 나중의 담화 내용이나 이런 것하고 결이 비슷해요, 결이, 물론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고발을 당하신 거예요? 내란 공범으로 지금 고발을 당하신 거거든요.

○증인 유인촌 글쎄요, 그건 뭐……

○민형배 위원 앞서도 나왔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셨는데 또 엊그제 정례 브리핑할 때는 사과를 하셨어요. 사과하셨지요?

○증인 유인촌 그날 호소문 할 때도 사과를 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그때도 사과를 하셨는데,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증인 유인촌 예.

○민형배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사과를 하셨어요. 이번에는 사과를 하신 거예요.

윤석열과 비슷한 그런 흐름의 호소문하고 사과를 하던 장관님 모습하고 둘 중의 어느 쪽이 진짜 장관님이십니까?

○증인 유인촌 사과하는 제 모습이 그냥 제 모습이지요.

○민형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증인 유인촌 예.

○민형배 위원 그래서, 정부대변인인데 가시지도 않고 연락이 안 돼서 못 가셨다는 것 아니에요?

○증인 유인촌 예.

○민형배 위원 저는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의 국무회의 연락체계가, 제가 죽 프로세스를 봤는데 이렇게 허술할까? 국무회의를 한다는데 장관에게 연락이 안 된다?

혹시 이 중에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 이거 관리하시는 분 계세요, 국장님 중에? 국무회의 통지하는 시스템 관리하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증인 유인촌 저희 부처는 아마 그런 쪽하고는 관계가 없을 겁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받는 분, 국조실에서 국무회의 개최 통지할 때, 공지 할 때 전산으로 공지를 하잖아요?

○증인 황성운 기조실로 되어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기조실로 오지요?

○증인 황성운 예.

○민형배 위원 실장님, 이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증인 황성운 따로 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없지요?

○증인 황성운 예.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국무회의 개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그래서 회의록도 없고.

그래서 장관님, 이 국무회의 무효지요? 국무회의라고 할 수 없는 거지요?

○증인 유인촌 아마 지금 총리님께서도……

○민형배 위원 이미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증인 유인촌 예.

○민형배 위원 장관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증인 유인촌 저는 뭐 가보질 못했기 때문에……

○민형배 위원 아니, 국무회의가 지금 소집통지도 안 왔고 회의록도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 국무회의가 효력이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증인 유인촌 아마 국무회의로서 딱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국무회의가 아니고.

따라서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고 위헌인 거예요, 지금. 그건 인지하고 계시지요?

○증인 유인촌 예, 뭐 아무래도.

○민형배 위원 그런 상태에서 처음 인지하신 게 언제입니까? 비상계엄이 벌어지고 있다.

○증인 유인촌 뉴스에서 보고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 민형배 위원 인지하신 다음에 첫 번째 통화를 누구하고 하셨습니까?
- 증인 유인촌 총리님하고 했습니다.
- 민형배 위원 총리님께 무슨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국무회의 말씀 안 하셨어요?
- 증인 유인촌 그러니까 별씨 한참 지난 뒤고요.
- 민형배 위원 한참 지난 뒤면 국무회의 끝난 다음에?
- 증인 유인촌 그렇지요.
- 민형배 위원 당연히 그랬겠지요.
- 증인 유인촌 아마 12시가 넘어서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하여간 이 사태가 무슨 사태인지……
- 민형배 위원 그래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 증인 유인촌 제가 무슨 일인지, 이게 진짜인지 이런 걸 좀 물어봤고요.
- 민형배 위원 그랬더니 총리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게 진짜냐 그랬더니?
- 증인 유인촌 우선 좀 기다리고 있어 달라고……
- 민형배 위원 아니, 비상계엄에 대해서 진짜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 증인 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계엄이 지금 이렇게 발표가 됐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집에 기다리고 있어 달라.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데……
- 민형배 위원 그때가 12시 좀 넘은 시간입니까?
- 증인 유인촌 좀 넘었습니다.
- 민형배 위원 이쯤 되면 정부대변인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리께도 그렇고 당시의 대통령께도 그렇고 이 비상계엄은 나는 연락도 못 받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된 거다, 이게 위법이다, 그리고 위헌이어서 시민들이 지금…… 그때 이미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있을 때거든요. 그걸 국무위원이기도 하고 대변인이니까 지금 민심이 이렇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 하신 게 있나요?
- 증인 유인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할 만한 그런 겨를이 없었어요, 사실은.
- 민형배 위원 왜요? 그렇게 이미 비상계엄이 진행이 돼 가지고……
- 증인 유인촌 아니, 그리고 곧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가 됐고. 그래서 저는……
- 민형배 위원 아니, 해제는 그로부터 한 시간도 더 돼서 한 거예요. 그사이에……
- 증인 유인촌 1시 언제쯤 해제가 됐지요.
- 민형배 위원 제가 여쭙는 건 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위헌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셨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 증인 유인촌 저희들은 그 당시에는 그냥 큰일 났다고만 생각했지요.
- 민형배 위원 아이고, 대한민국의 정부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관, 국무위원께서 큰일 났다고만,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까?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이게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판단하셔야 될 것……
- 증인 유인촌 그러니까 좀 대기를 하고 곧 소집이 될 때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거지요.
- 민형배 위원 소집이 될 때라는 말씀 무슨 말씀이시지요?
- 증인 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을 다시 소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지요.

○**민형배 위원** 아니, 이미 비상계엄이 진행 중인 데요?

○**증인 유인촌** 아니, 그리고 국회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분명히 소집될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대기상태로 있었지요.

○**민형배 위원** 저는 지금 국무위원분들이 이 상황을 절차와 내용에서 정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유인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지금 집무를 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 대한 엄청난 결례 아닙니까? 멈추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를 운영할 자격이 없는데, 이를 테면 내란의 공범으로 지금 비난을 받고 있고 고발까지 당한 상황인데 그대로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까? 다른 국무위원들 놔두고 우선 장관님 어떠세요?

○**증인 유인촌** 아니,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정말 바로……

○**민형배 위원** 그러시지요? 2008년에도 그러셨더라고요.

○**증인 유인촌**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러면 모든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민형배 위원** 장관직에 계시지 않아도 두 차관 계시고 관료조직이 튼튼하게 있어서 아주 잘 돌아갈 겁니다.

○**증인 유인촌** 부처는 걱정이 없지요. 부처는 걱정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국무회의나 이런 것들이 지금……

○**민형배 위원** 부처 걱정이 없지요. 국무회의는 대참하면 되지요. 차관이 참석……

○**증인 유인촌** 1명만 빠져도 아마 지금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민형배 위원** 대참해도 되지 않습니까?

○**증인 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국무위원이 아닌 사람이 대참하는 건 의결이 안 되기 때문에……

○**민형배 위원** 아니요,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증인 유인촌** 전체적으로 다 그런 입장입니다.

○**민형배 위원** 아, 그래서 그러면 지금 국무회의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시는 거네요, 그 목적으로?

○**증인 유인촌** 예. 아니면 국정이 마비가 되는데요, 지금.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요, 그 목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엊그제 국무회의 열어서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온당하다고 보세요? 그렇게 국무회의를 열어서, 국무회의의 자격만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법안을 6개나 재의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결정에 참여하셨잖아요?

○**증인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괜찮으세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셔도? 상황 유지만 해도 지금……

○**증인 유인촌** 어쨌든 그것은 민생과 관계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고요. 이미 권한대행하시는 총리께서도 충분히 그 부분 숙고를 많이 하시고, 그날 농축산식품부장관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하셨고. 그러니까 오히려 미래를 위해서나 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마 재의를 요구한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 그래서 동의를 하신 거예요?

○증인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민형배 위원님,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까?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현 위원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장님께 제가 요청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은 잠시 멈춰 주십시오.

제 질의가 주질의 7분이고 보충질의 5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 질의의 연속성과 완결성을 위해서 이번 한 번은 보충질의 5분을 당겨서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저희가 일단 주질의 7분을 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한 2~3분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5분을 바로 사용하신다는 거지요?

○박수현 위원 아, 그러면 추가로 조금 더 주십니까?

○위원장대리 임오경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보충질의로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박수현 위원 주질의하겠습니다.

유인촌 장관님, 오늘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제 마음을 울립니다. 이 기사 인터뷰의 내용을 읽어 드릴 테니까 장관께서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시고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비상계엄과 탄핵에 관한 입장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국무위원으로서의 무책임한 발언보다는 가슴으로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레비츠키 하버드대 교수가 오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누리는 민주주의는 결코 당연한 게 아니다. 40년 노력해서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 한국은 민주주의가 무너진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될 뻔했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를 놓고 국무위원으로서 또 정부대변인으로서, 국민께 드리는 호소 말씀을 읽었던 장관으로서 그렇게 무책임한 태도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한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시면서 본 위원의 발언에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장관께서 출석하지 않으셨던 그 회의에 장관께서 읽으셨던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그 말씀이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조목조목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오늘은 이 국회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국민께 장관이 그렇게 보고했듯이 저도 국민께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인촌 예.

○박수현 위원 그러면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버드대 교수의 이 인터뷰 내용, 이 말

씀을 가슴에 얹고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장관은 호소문에서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과의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국민이 겪고 계신 혼란과 고통에 대해서 사과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고통과 혼란을 초래한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인 윤석열이 대한민국 군대를 동원해서 이 국회의 권능을 정지하고 나라를 장악하려고 했던 그 불법하고 위헌적인 행동에 대해서 장관은 국민께 사죄했어야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생각을 해 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관은 호소문에서 ‘정부가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회 때문에, 야당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 권능과 권한과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해서 이 헌정을 중단시키려고 한 국현문란, 이것이 국회가 일으킨 것입니까? 이 말씀은 지금 장관께서는 국회를 향해서, 야당을 향해서 하신 말씀처럼 들립니다. 누가 읽어도 그렇게 들립니다.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였다’, 이것 역시 국회를 원망하는 그리고 국회가 잘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어떤 자입니까? 비상계엄 선포 후에 바로 안가 모임에 참석해서 내란의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자입니다.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소추를 한 것이 아닙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장 긴급체포돼서 구속되었지요. 이 사람들을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혐의로 탄핵소추를 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밝혀지고 있는 내용만으로, 어떤 것입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에 대통령과 함께 안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상계엄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고 경찰병력을 동원해서, 그 경찰병력 동원이 지금 4200명이나 동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은 소수의 병력을 국회에 보냈다고 하지만 경찰병력만 4200명이고 현재 밝혀진 군대 특수부대만 해도 1600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이 조지호 경찰청장은 탄핵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대통령 윤석열과 함께 비상계엄을 공모한, 내란을 공모한 혐의로 탄핵소추를 당한 것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20명 가까운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것 역시 민주당이, 야당이 아무 잘못이 없는 국무위원들을 탄핵소추해서 국정이 어려워졌다라고 야당을 지금 비난하는 이런 취지로 읽히는 글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어떤 자입니까? 그의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한,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 자입니다. 전 정부의 통계 조작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무죄가 됐지만, 이것이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것은 국기문란이다라고 규정을 함으로써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처음부터 심각하게 훼손한 자입니다. 이런 자를 그 직에 그냥 놔둬야 됩니까?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은 그렇게 많은 국민적 의혹을 샀던 대통령실 관저 공사, 21그램이라고 하는 작은 회사에 이것을 왜 맡겼고 그 공사 수주의 배후에 김건희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김건희가 그 배후에 있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이 감사의 초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망발을 한 자입니다. 세상 역대 볼 수 없는 그런 죄악의 감사원장이었어요.

대통령실 관저에 있는 초호화 스크린골프장으로 의심받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창고라고 이야기했던 그 건물에 대해서는 아예 감사 대상에서 통째로 빼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가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감사원장이고, 이런 자를 탄핵소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 장관께서는 그 호소문에서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관, 이 비상계엄 하나를 막지 못한 국무위원들, 이 국무위원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국민의 일상에 큰 위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은 그렇게 잘못이 없으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왜 고개를 숙였습니까?

그리고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들과의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관,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미 국무부 부장관인 커트 캠벨이 뭐라고 했습니까? 심각한 오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심각한 내정간섭이 될 수 있는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장관은 탄핵소추 가결 이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탄력성을 보여 주었다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미의 동맹과 한미일의 관계를 해치는 것은 바로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이런 문제가 동맹 관계를 해치는 것이지……

그리고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비상계엄이 있던 그날 이임하는 미국 대사와 점심을 먹고 그날 오후부터 전화를 안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안보1차장도 전화를 안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미국 대사의 전화를 안 받는 외교장관과 외교부, 안보2차장…… 1차장 입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자들이 바로 한미동맹을 완전히 해치는 그런 행위 아닙니까?

내용이 더 있습니다만 장관이 국민께 읽었던, 이렇게 심각하게 내용의 본질도 모르고 왜곡된, 사실이 아닌 이러한 대국민 호소문, 이것은 바로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입니다. 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내란을 선전하는 자는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관은 단순히 내가 쓴 게 아니고 정부대변인으로서 그냥 읽은 것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국무위원 자리가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알아봤어요. 장관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총리실에서 심한 압박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직을 걸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대변인으로서 어떻게 국민에게 이렇게 국민을 속이는 담화를 발표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 지금 기회를 드릴 테니까, 1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여부와 그리고 동의한다면 국민께 이 내란에 정말 동의하는, 국민들에게 이 내란의 목적과 내용을 잘못 이해하도록 만든 그 엄중한 잘못에 대해서 사죄하십시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증인 유인촌**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실제적으로 물론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참……

실제 저희들이 그것을 호소문으로 발표할 때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뒤의 그런 여러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안타까운, 혼란스러운 이 현실에 대한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 저는 그냥 그 호소문 자체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사실은 말한 겁니다. 하여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고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사과도 드리겠고요.

또 그 이외의, 이런 부분이든 어쨌든 국무위원으로서의 전체적인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또 나중에 제가 이 자리를 떠나면 훨씬 더 자유롭게 많은 의견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수현 위원** 나중에 떠나서 자유로울 때 사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장관의 직으로 국민 호소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장관의 직으로 국민에게 사죄를 해야 된다니까요.

○**증인 유인촌** 지금 말씀은 드린 것처럼……

○**박수현 위원** 아니, ‘저 개인이’, ‘그렇게 느끼셨다면’을 전제하지 마시고 무조건 국민에게 사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증인 유인촌** 국민께 사죄는 지금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가슴에 잘 담고 있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저도 장관님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대변인 격으로 발표한다라는 말씀을 사전에 저도 인지하고 제 입장에서도 오히려 요청을 드렸습니다, 장관님이 직접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님이 정부의 대변인 격으로 발표한 담화를 보고 저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날이 오기를 저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런 날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요청을 드렸던 부분인데 정부대변인 격으로 담화를 발표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을 대변해서 사과를 요청드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님은 몇 번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 또한 이렇게 한 말씀 다시 한번 드려 봅니다.

○**조계원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임오경** 예, 조계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조계원 위원** 아까 본 의원실에서 국무조정실의 호소문 작성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제출 사항은 국무조정실 호소문 작성자, 결재 라인 그리고 문체부의 브리핑 준비 라인과 발표자,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법 제90조 내란 선동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또 유병채 실장이 수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단순한 윤문인지 원래 국무조정실에서 내려왔던 원문하고 수정사항 각각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장관님께서도 좀 확인하셔 가지고 오늘 이따 오후 질의까지는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민형배 위원님과 또 조계원 위원님이 오후 질의 전까지 자료 요청을 두 분이 하셨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장관님 선 안에서 충분히 자료 요청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원 위원**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듯 지난 12월 10일에는 정부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린 말씀을 발표하시고 그리고 12월 18일 ‘한국에서 계엄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내셨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당시의 위헌적인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사과처럼 보이는 말장난으로 국정 공백 혹은 차분한 법치 등을 운운하면서 그러면서 국민을 볼모로 삼아서 야당을 협박했다 이렇게 느끼고 계십니다.

이제 확인차 질문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은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증인 유인촌** 계엄은 잘한 일이 아닙니다.

○**김재원 위원**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은 내란죄 맞습니까, 아닙니까? 정당한 통치 행위입니까?

○**증인 유인촌**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김재원 위원** 어째서 판단을 못 하시지요?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 유인촌** 그거는 법으로 다 판단하겠지요.

○**김재원 위원** 목숨을 걸고 장갑차를 막아 주신 시민들의 도움으로 그리고 저 스스로도 목숨을 걸고 국회 담을 넘어서 총 맞을까 두려워하면서 본청까지 뛰어와서 표결에 임했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장관, 지금 제가 질의하는 데 있어서 계급장 떼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답해 보십시오. 이 내란 행위가 잘된 일입니까? 정당한 통치 행위입니까? 내란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증인 유인촌** 계엄이 잘못됐다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김재원 위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기에 내란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왜 내란죄가 맞는지 아닌지는 얘기를 못 하십니까?

○**증인 유인촌** 그런 부분은 제가 판단할 수가 없지요.

○김재원 위원 왜 판단할 수 없습니까? 국무위원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증인 유인촌 물론 그렇지요.

○김재원 위원 얘기 못 하시겠습니까?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역사에 기록될 그런 죄를 지으시겠습니까? 왜 지금이라도 양심선언 못 하십니까? 장관이 그렇게 몸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방송 보시고 계신 국민들께서 ‘장관한테는 그래도 좀 미안해 하는 마음이 느껴지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양심선언을 못 하세요?

얘기 못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증인 유인촌 어떤 대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김재원 위원 윤석열 내란죄 맞잖아요.

○증인 유인촌 제가 이 직을 벗고 난 다음에 다 얘기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아니요, 직에 있을 때도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대통령 한테 직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까, 국무위원 중에서! 옛날에 왕정일 시절에 목이 잘려도 직언하는 건 했습니다. 왜 국무위원들 그거 못 하시냐고요.

대답 못 하시겠습니까?

○증인 유인촌 그런 얘기 할 시간도 없었고……

○김재원 위원 시간 지금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증인 유인촌 그런 조건도 없었고……

○김재원 위원 하십시오.

○증인 유인촌 대통령께 그런 직언을 할 만한 시간과 공간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못 드렸습니다.

○김재원 위원 지금이라도 얘기하십시오, 내란죄 인정하라고. 못 하시겠습니까?

○증인 유인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김재원 위원 왜 못 하십니까, 국무위원인데요?

○증인 유인촌 국무위원 입장에서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하기가 힘들지요.

○김재원 위원 왜 그렇게 정권의 개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무위원이 국민을 먼저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대통령을 먼저 생각을 합니까?

유산청장님!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김재원 위원 비상계엄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물론 잘못된 일입니다.

○김재원 위원 피의자 윤석열 내란죄 맞습니까,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날 장갑차 앞에서 보셨냐고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국민들이 지금 다 이거 보고 계십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란 사태 당시에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 피해 사실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이 이 부분 관련해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및 국무1차관과 비상계획팀장을 비롯해서 국무조정실을 국수본에 고발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말씀드리면, 고발 내용에 따라서, 포고령 발표가 그날 당일 날 12월 3일 23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상계획팀장이 23시 04분에 전 기관, 행정기관 및

지자체까지도 다 폐쇄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당직사령을 통해서 전파돼서 한예종까지 그리고 전통문화대학교까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PPT 보시지요, 영상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학생들을 이렇게 한예종 직원들이 직접 내보냈습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예종 학생 중언입니다. 학생들이 겪어야 했던 피해입니다. 차도 없는데 막차가 끊기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 내쫓겼습니다.

한예종 총장!

다음 PPT 주시지요.

'갑작스러운 조치로 인해 불편을 겪은 학생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혼란과 불안을 깊이 이해하며 이 점에 대해 진심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이렇게 입장문 발표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예,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짧게 답변하십시오.

총장! 총장은 교육자입니까 아니면 관료입니까? 역시 정권의 개입입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교육자이자 지금은 학교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교육자지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예.

○**김재원 위원** 교육자라면 학생 보호를 먼저 우선해야지 그 엄혹한 계엄의 밤 속에 차편도 끊겼는데 학생들을 내보냅니까? 내쫓습니까? 아무리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말이지요. 학생들 아닙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그 당시 저는 학생의 안전만을 생각을 했고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학생을 내보내는 것과 학생을……

○**김재원 위원** 됐고요. 계엄이 뭔지 모르십니까? 79년, 80년에 일어났던 일 뭔지 모르시나고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저는 안전을 위주로 생각을 해 가지고……

○**김재원 위원** 안전을 위주로 생각한다면 그 밤에 차편도 끊겼는데 학생들을 내보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총장님? 학생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사실 변하지 않아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예, 위원님, 맞는데요……

○**김재원 위원** 이 자리 빌려서 두루뭉수리 하게 '진심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학생들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물론 다시 한번……

○**김재원 위원** 사과하십시오, 학생들에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사과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양해를 구합니다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과하시라고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지금 할까요?

○**김재원 위원** 예, 하십시오.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예.

어린 학생들이 밤늦게 귀가하는 과정에서 느꼈을 두려움 또 불편함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재원 위원** 장관, 문체부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 한예종 독립예술기관 전환 말씀하셨지요? 독립예술기관 전환 의미가 뭡니까?

○**증인 유인촌** 이번 출입 통제 이런 것도 소속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전통이 내려갔습니다.

(임오경 간사, 전재수 위원장와 사회교대)

○**김재원 위원** 그런 기사는 봤습니다. 그런 입장 표명의 기사는 봤는데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2009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예종을 표적감사하고 예산 삭감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예술기관 전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체부가 말하는 독립의 의미가 잘못된 이념적 배경으로 정부 예산 지원 줄이고 대한민국 예술교육의 요람을 개점 휴업 상태로 만들겠다 이거 아닙니까?

분명히 경고하겠습니다. 한예종 독립이 예산의 지원 혹은 축소나 폐지를 의미해서는 안 될 것이고 과거 장관 재임 시에 한예종의 축소정책 등 학교와 예술계를 억압했던 그런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인촌** 과거에 그런 적 없습니다.

○**김재원 위원** 없다고요?

○**증인 유인촌** 예산을 축소하거나 학교를 억압한 적은 없고요. 학교 자체에 간섭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랬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증인 유인촌** 한예종은 훨씬 더 자유롭게……

○**김재원 위원** 한예종 총장, 같이 지켜보시겠습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예.

○**김재원 위원** 같이 지켜봐야 합니다. 학생들 보호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게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혐위선동을 금한다’. 포고령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따르지 않으면 처단하겠다’.

기본적으로 헌법 제21조 1항 언론·출판의 자유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맞지요?

○**증인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떤 입장이라도 한번 냈나요?

○**증인 유인촌** 저희들은 그날 계엄이 됐다가 바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입장을

이렇게 저렇게 낼 만한 그런 여유도 없었습니다.

○**양문석 위원** 여유가 없어서 안 냈나요?

○**증인 유인촌** 어차피 언론·출판의 자유는 늘 보장이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문석 위원**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1,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사상 필요할 때,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군사상 필요할 때’가 없습니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법이지요?

○**증인 유인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양문석 위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증인 유인촌** 예.

○**양문석 위원** 좀 정확하게 평소의 장관 모습으로 돌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법이지요?

○**증인 유인촌** 포고령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문석 위원** 예.

○**증인 유인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문석 위원** 그런데 왜……

○**증인 유인촌** 불법이다 합법이다를 떠나서……

○**양문석 위원** 계속해서 장관께서 이야기하는 그 호소문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당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위기의 시대에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입니다’, 야당이 법치를 위반했나요?

○**증인 유인촌** 아니, 그건 위반했다 안 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호소하는 거잖아요.

○**양문석 위원** 12·3 내란, 폭동 옹호하고 있는 여당, 국힘당에게 호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인 유인촌** 다 똑같이 하는 거지요, 사실은.

○**양문석 위원** 똑같이 하는 건데 야당을 딱 집어서……

○**증인 유인촌** 왜냐하면 그건 아무래도 다수당이시고 이 국회에서 모든 입법이나 여러 가지……

○**양문석 위원** 장관,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불법을 저지른 것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와 군입니다. 무슨 야당에게 차분한 법치를 요구합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봅시다. 앞서 많은 분들이 지적했지만 이 호소문 보면 정말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조지호 탄핵소추안을 보고’…… 이게 가벼운 일입니까?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상계엄이 뭔데요? 내란 폭동이잖아요! 역지사지해 보세요! 비상계엄이 성공하고 내란 폭동이 성공했었으면 이 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감금되고 고문받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갈 수 있었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는 감시와 견제가 사라진 여러분들이 원하는 천국에 살 수 있었지요.

비상계엄과 내란, 폭동이 뭐가 달라요? 말장난해요? 이 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감금당

하고 고문당하고 죽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갔단 말이에요, 성공했으면요.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내란, 폭동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관께서는 말로써, 장난으로밖에 안 들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범법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헌법적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려 대통령실을 향하여, 여당을 향하여 혼쭐을 내고 법치, 차분한 법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도대체 야당이 뭐 했다고……

국민들하고 맞서 싸운 게 차분한 법치를 무너뜨리는 겁니까? 교과서 안에 있던 계엄령을 시민들이, 보좌진들이,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온몸으로 막아 준 게 그게 차분한 법치를 어그러뜨리고, 흥분한 폭동으로 몰아가려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장관의 위치에서 이야기를 못 하는 것을 자연인의 위치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세상에 그런 비겁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유인촌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증인 유인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양문석 위원 정말 피가 끓습니다. 성공한 쿠데타 그 이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집에서 나올 때 죽을 수도 있다, 감옥에 갈 수도 있다, 한동안 못 볼 수도 있다,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나왔습니다.

시민들은요? 언제 총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 계엄, 그 장갑차 앞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그 장면들 안 보셨습니까? 군인들의 총구 앞에서 싸우는 그 시민들 안 보셨습니까? 그런데 내란이 아니라고요? 폭동이 아니라고요? 비상계엄이 내란이고 폭동인데……

저는 그래도 현 정권의 유인촌 장관은 건국절을,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했고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의 유일한 장관인데 그래서 유인촌 장관은 괜찮은 사람이다, 유일하게 윤석열 정권 장관 체제에서 장관 같은 장관이라고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요 지금 이 모습 보면서요 정말 피를 토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국무위원 한 사람이라도 책임지고 잘못했습니다, 석고대죄하고 내란 폭동 규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한 놈도 없냐고, 한 놈도! 역적 놈들이야, 대역적 놈들이야, 내란수괴의 공범들이야.

어떻게 국무위원 한 놈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진심으로 내란 폭동이라고 석고대죄하는 놈이 없냐고요.

○위원장 전재수 양문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10초만 좀 쉬었다 할게요. 집중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음성 녹취 먼저 좀 틀어 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추동진 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음성 맞지요?

○증인 추동진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언제 누구하고 전화한 겁니까?

○증인 추동진 지교철 선배님하고 통화를 한 내용입니다.

○이기현 위원 예.

이재명·한동훈 관련 자막 빼라, 탄핵소추안 내용 빼라, 계엄 선포 내용과 대통령 관련 한 유리한 내용만 쓰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증인 추동진 저희 한국정책방송은 정부정책을 홍보하기 때문에 정치적 쟁점이나 이슈 같은 것은 자막이나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현 위원 시간 관계상 다 듣지는 못했지만, 지교철 사장님한테 수차례 전화해서 ‘정부 입장만 내보내라’,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나 여야 대표들의 정치적 발언 빼라’ 이렇게 계속 지시하셨습니다. 맞지요? 맞잖아요?

○증인 추동진 저희 KTV는 정부정책 홍보가……

○이기현 위원 아까 얘기하셨어요.

○증인 추동진 예.

○이기현 위원 맞지요?

추동진 팀장님 본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누가 시킨 겁니까?

○증인 추동진 저희의 원래 전에부터 기조였고요. 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기현 위원 원장님 말씀하셨다?

녹취 하나 더 틀어 봅시다.

(영상자료 상영)

이은우 원장, 박준석 보도국장이 지시한 거지요?

○증인 추동진 예,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이기현 위원 이은우 원장의 지시로 빼라고 했던 내용 한번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삭제 지시 내려온 자막입니다. ‘국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의장, ‘국회,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 “이재명 대표, ‘위헌적 계엄 선포……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 달라”, “한동훈 대표, ‘계엄 선포 효과 상실됐다. 군경 공권력 행사는 위법이다”라고 하는 자막이었어요. 이것 뺀 거지요?

○증인 추동진 뺐는데 이전부터 이런 자막은 넣지를 않았습니다.

○이기현 위원 이것 틀린 내용이 있습니까?

○증인 추동진 틀린 내용은 아닌데요 저희 정부, 정책방송의 기조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KTV, 계엄 방송 내내 무슨 내용을 내보냈냐면 대통령 담화문 열 번 넘

게 반복해서 방송했고 포고령 내용만 계속 읽어 줬어요. 계엄군이 국회 진입하는 화면내보내지 않았고 계엄이 해제되고 의결되는 모습, 국회의 진행 상황들 장면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KTV가 계엄을 미화했고 계엄을 옹호만 했습니다.

KTV가 한국정책방송원이지요, 공식 명칭이?

○증인 추동진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윤석열 개인 유튜브입니까?

○증인 추동진 아닙니다.

○이기현 위원 작년에는 김건희TV 되더니 언제부터 윤석열TV가 됐습니까?

한국정책방송원이 대통령 한 사람의 방송입니까?

○증인 추동진 아닙니다.

○이기현 위원 아니지요? 공공의 영역에서 방송을 하시는 거지요?

○증인 추동진 아닙니다.

○이기현 위원 어느 영역에서 방송을 합니까? 행정부를 대변하는 방송국입니까, 정권을 대변하는 방송입니까?

○증인 추동진 행정부를 대변하는 방송입니다.

○이기현 위원 행정부의 대통령이 최고통치권자이지만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이유로 행정부 전체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해서 정책방송원이 개인 방송처럼 이렇게 움직여도 되는 겁니까?

원장!

○증인 이은우 예.

○이기현 위원 일어나서 대답하세요.

○증인 이은우 예.

○이기현 위원 용산 대통령실 사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증인 이은우 없습니다.

○이기현 위원 최재혁 비서관하고 통화한 적 있어요, 없어요?

○증인 이은우 없습니다.

○이기현 위원 통화기록 제출할 수 있습니까?

○증인 이은우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러면 원장님 얘기하셨기 때문에 11월 말에서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1월에서부터 저희 국감이 끝난 이후에 최재혁 비서관하고 통화한 내용 오늘까지 해서 한 달 반 치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이은우 그것은 개인정보인데 제가……

○이기현 위원 아니, 지금 내실 수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증인 이은우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허허……

그러면 원장님,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오늘 보도자료 낸 것 맞지요?

○증인 이은우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국회에서 현안질의가 있는데 또 보도자료 내셨어요. 지난번 국감 때 김건희 황제관람 냈을 때 생방송으로 저 TV를 통해서 저희들이 봤는데, KTV 아래도 됩니까? 국회를 이렇게 기망해도 돼요?

○증인 이은우 위원님, 저희 원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저희 원에서 그런 정도의 대응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현 위원 KTV가 자막 빼라고 한 지시 문제 삼은 직원에 대해서 그 자리에 이를 후에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지교철 사장님 계신데,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지교철 방청석에서 — 죄송합니다. 앉은 채로……)

예, 불편하시면 앉아서 해 주십시오.

(○지교철 방청석에서 — 죄송합니다. 다리를 다쳐서……)

예.

KTV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지교철 방청석에서 — 지금 17년 있었습니다.)

이런 통지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지교철 방청석에서 — 한마디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요.

(○지교철 방청석에서 — 예.)

정말…… 지교철 사장님 KTV에서 17년 근무한 사람입니다.

원장님은 오신 지 몇 년 됐습니까?

○증인 이은우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기현 위원 6개월 되셨지요?

○증인 이은우 예.

○이기현 위원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해고 사유가 돼버렸어요.

추동진 팀장님, 해고도 원장이 지시했습니까?

○증인 추동진 해고가 아니고요. 저희들 정기적인 개편이 있어 가지고요, 1월 달에 개편하니까 그때 이력서를 다시 제출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기현 위원 이은우 원장님, 지난번 예산심사할 때 KTV가 저에게 어떻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저희 의원실에 와서는 예산이 삭감되면 비정규직부터 자를 거다라고 협박하고 다녔어요, 여기 계신 모 실장님하고.

○증인 이은우 협박하고 다닌 것은 아니고요……

○이기현 위원 이때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지요?

○증인 이은우 예.

○이기현 위원 문제 제기했을 때 원장이 예산소위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과문내고 사과하셨지요?

○증인 이은우 예.

○이기현 위원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얘기했지요?

○증인 이은우 그런 일이 없겠다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예산이 축소가 되면 저희 불가피합니다……

○이기현 위원 장미란 차관님!

KTV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희들에게?

○증인 이은우 그리고 이분이 지금……

○이기현 위원 앉으세요.

○증인 이은우 예, 알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KTV 예산 좀 살려 달라고 장미란 차관님이 오셔서 의원실 다니시면서 정말 호소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KTV 예산 일정하게 보장해 드렸습니다. KTV 잘 관찰하겠다고, 앞으로 이런 일 다시는 없겠다, KTV가, 한국정책방송원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오염되는 일 막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또 이러고 있어요. 내란을 선동하는 방송을 해 버렸어요. 내란을 응호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KTV가.

저는 KTV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우 원장 국회를 계속 기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김건희에게 잘 보이려고 온 지 몇 달 안 된 원장이 KTV를 사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사기 저하시키고 부당해고하고 있어요.

저는 이은우 원장 당장 파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부당한 지시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 것에 대해서 문체부가 감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감사하시겠습니까?

○증인 유인촌 예.

○이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잠깐 시간……

이은우 원장님께 사과를 먼저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11일 국회에 발도 딛지 않은 상황에서 도대체 누구의 백으로 그렇게 당당하신지, 여야 합의된 전체회의에 출석하라는데 피감기관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답변을 듣고 사과를 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이은우 원장님, 12월 11일 날 여야 합의에 의해서 상임위 전체회의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날 유인촌 장관님은 불출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공사 사장직무대리, 콘텐츠진흥원은 상임위 전체회의에 출석을 했는데 유일하게 문체부를 제외하고 원장님만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인 이은우 예.

○위원장 전재수 말씀을 하십시오.

○증인 이은우 그날 제 판단은 저희 KTV는 다른……

○위원장 전재수 마이크를 올리셔 가지고……

○증인 이은우 올렸는데 이게 안 되네요.

저희 KTV는 다른 세 기관하고 달리 문체부 소속기관이고 저희는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급자들이 출석을 안 하는데 제가 나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제 판단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위원님들한테.

○위원장 전재수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증인 이은우 예.

○임오경 위원 이은우 원장의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 이은우 원장의 판단이라고 하는데 제 판단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국회를 기망한 행동으로 인해서 KTV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지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고, KTV가 아리랑TV에 흡수되어서 보수·진보를 떠나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KTV 폐지하는 데 제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제 국민권익위에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점수를 발표했네요?

○증인 유인촌 예.

○임오경 위원 문체부 몇 위 했습니까?

○증인 유인촌 5위입니다, 5위.

○임오경 위원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증인 유인촌 부끄럽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21대·22대, 이 5등급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 오셔서, 지금 연임 아니십니까? 다른 장관들과 다르게 그래도 경륜 있고 하니 베테랑이시니까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님이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진짜 장관님 사퇴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증인 유인촌 예, 사퇴할 겁니다.

○임오경 위원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참담합니다.

또한 제가 장관님께 한 말씀 더 드리면 이태원 참사 때 159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유가족은 이 한겨울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이상민 장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오른팔 같은 장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사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듣지 않았고 야당 위원들의 그 목소리를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살려 주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이번에 계엄령 선포 후에 그 모든 국무위원들이 사표를 제출했는데 유일하게 두 명만 또 수락을 해 주더라고요.

이번에 유인촌 장관님은 팽당하신 겁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윤석열 씨는 자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상민 전 장관, 김용현, 이 두 사람 자기 사람들만, 오른팔·왼팔들만 사표 처리를 해 줬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책임을 져야 될 때는 끝까지 지켜 내더니 이번에는 잘 피해 가라고 두 사람만 처리해 줍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장관님도 심도 있게 한번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계엄령 터진 후에 그렇게 앞에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바람과는 다르게 장관님은 호소문 발표를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두 가지만 장관님에게 질의를 드릴까 해요.

대변인 격으로 발표하신 이 두 가지 중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증인 유인촌 예.

○임오경 위원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그리고 선거 개입을 한 게 모든 정황이 드러났고, 김건희 추가조작, 파우치, 선거 개입, 명백하게 드러난 증거 아닙니까? 법 앞에서는 누구나 공정과 평등해야 된다고 대통령이 그렇게 외쳤던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두 사람은 법 앞에 공정하지 않고 평등하지 못합니까?

그런데 왜 장관님은 이런 호소문을 말씀하셔요? 이 두 사람이 법 앞에 공정하고 평등하게 하지를 않고 지키지를 않고 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있는데,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호소문에 왜 이 내용이 들어가요?

또 마지막 부분에서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거대 야당 대표를 보복 수사를 3년째 하고 있어요.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을 현 정부가 존중이라도 한번 해 준 적 있습니까?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하고 내가 그 존중을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아닙니까? ‘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나야. 거대 야당이든 뭐든 나한테 복종해’, 그리고 거대 야당은 불법 선거라고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진압합니까? 다 잡아들이라고 합니까?

저는 정당하게 국민의, 우리 지역에서 정당하게 저 목숨 걸고 열심히 뛰어서 호소하면서 당선됐습니다, 선출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이게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불법 아니예요? 어떻게 당사자는 국민의 선택을 받았고 국회의원들은, 그것도 야당 국회의원들은 정당하지 않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지, 그런데 거기를 대표해서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는 장관님에게 심히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앞서서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같은 질의 하겠습니다.

아직도 계엄이 야당 탓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증인 유인촌 그렇지 않습니다.

○임오경 위원 적어도 계엄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국무위원으로서 진실된 사과와 책임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했던 것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디서 지금 불법적인 계엄에 야당 탓만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일단 계엄 선포에 있어서는 지금 여당 의원님들도 A가 맞다, B가 맞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2시간 반 동안 자기가 진짜로 겁을 주려고 했다? 이게 대통령 입에서 할 말입니까? 결과론 갖고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선포한 그 자체만을 가지고 내란수괴라고 저희는 무조건 봐야 됩니다. 더 이상의 앞과 뒤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계엄 선포 이것에 있어서 내란수괴자 맞습니다.

그것만 본다면 장관님 입장은 어떠세요? 내란수괴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증인 유인촌 저한테 그런 대답을 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아니, 저는 그것 하나만 보자라는 거예요. 결과론 갖고 얘기하지 말고 지금 21세기에 계엄 선포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유인촌 있을 수 없습니다.

○임오경 위원 예, 그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할게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에서 각 부처의 비상안전기획관실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비상안전기획관은 개방형 직위로 퇴역·예비역들이 가는 직위입니다. 장관님 알고 계셨지요?

○증인 유인촌 예.

○임오경 위원 법원 행정처에서는 계엄사령부의 사무관 파견 요청에 대해 거부한 것과 다르게 몇몇 부처에서는, 명단 작성 및 통보 조치를 한 부처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2차 계엄을 염두에 두고 별도 조치라고 보이는데 문제부는 계엄사령부로부터 비상안전기획관실 공무원 파견 요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유인촌 제가 듣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듣기로는’ 아니라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증인 유인촌 정확하게는 보고 못 받았습니다.

○임오경 위원 차관님 답변해 보세요.

○증인 용호성 없습니다.

○임오경 위원 장관님, 향후에도 만일 이러한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증인 유인촌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에도 그런 일이 없는데 뭐 그런 요청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이런 계엄령이 선포될 거라고 누구도 기대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또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대로 이것을 방관하면 이런 일은 계속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이것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평계도 거짓도 저는 반영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장관님, 저는 오늘 할 말이 지금 너무 많아요. 여기서 이 계엄령 선포가 있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민은 다 알고 있어요.

자기 와이프 하나 지키자고 김건희 특검법을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저는 이런 일이 왔다라고, 이게 반드시 야당 탓이 아니라 저는 김건희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와이프 하나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벼립니까? 대한민국을 한번에 다 자기 손아귀에 넣고 장악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왜 또 여기서 김건희라는 이름 석 자가 나오는지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이름 석 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고 징글징글합니다. 저에게도 역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트라우마가 없었는데 저는 이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죄송해서 이 트라우마를 감히 입 밖으로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우리 국가유산 종묘까지 해집고 다니는 이 김건희의 황제 행보에 있어서 지금 저는 시간이 없어서 오후에 국가유산청장님에게 질의를 하고 장관님에게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답변 준비해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재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이은우 원장님, KTV 홈페이지에 있는 이은우 원장의 인사말을 보면은 KTV는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보면 KTV는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계엄을 선전·선동하는 방송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KTV의 방송 사명과 부합합니까?

○증인 이은우 저희가 그렇게 내란을 선동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팩트를 전달했을 뿐입니다.

○조계원 위원 영상 한번 틀어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지금 KTV에서 저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영상 부탁합니다.

(영상자료 상영)

윤석열의 담화뿐만 아니라 저렇게 옹호하는 해설까지 곁들였는데 그게 올바른 방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은우 위원님, 저게 옹호하는 방송이나 이런 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전달을 하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조계원 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된 이후에 방송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 담화를 두 차례나 더 했지요?

○증인 이은우 계엄 해제 의결을 한 후에요?

○조계원 위원 예.

○증인 이은우 계엄 해제 의결을 한 소식을 저희가 전했지요. 전하고 자막 처리도 하고, 단지.....

○조계원 위원 그다음에 대통령 담화 방송을 두 차례나 더 한 걸로 나오는데.....

○증인 이은우 그거는 그 당시에 저희가 갖고 있는 소스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방송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계엄 해제 의결이 됐는데도 계엄을 선포하는 대통령의 담화를 두 번씩이나 더 방송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 증인 이은우 그거는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 조계원 위원 그게 알권리예요?
- 증인 이은우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계엄에 대한 발표가 그거에 대한 소위 말하는 사법적인 그런 문제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 조계원 위원 추동원 팀장!
- 증인 이은우 추동진 팀장님……
- 조계원 위원 추동진 팀장, 왜 그 자막에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나 이런 여타의, 계엄 해제 의결 위에 그 자막 처리된 부분을 왜 뺐습니까?
- 증인 추동진 해제 의결 자막은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타자 스크롤로…… 계엄 해제 의결한 거는 저희들이 자막으로 넣었습니다.
- 조계원 위원 이재명 대표나 관련한 발언들은 다 빼도록 지시하지 않았어요?
- 증인 추동진 정치적 쟁점이 되는 이슈는 저희들이 빼는 게 맞고요. 국회에서 계엄 해제됐다는 거는 자막을 넣었습니다.
- 증인 이은우 그거는 오히려 저희가 강조해서 여러 번 넣었습니다.
- 조계원 위원 ‘국회의장실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따라 계엄령 선포 무효’ 이 자막 왜 뺐습니까?
- 증인 이은우 지금 그거 오전에 그 4개 나온 거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계원 위원 그렇지요.
- 증인 이은우 아, 그거는……
- 조계원 위원 대한변협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절차적 위헌, 해제 촉구’ 이런 자막도 뺐고, 이재명 ‘계엄 선포, 실질 요건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 이것도 뺐고. 이건 누가 지시한 겁니까?
- 증인 이은우 그 첫 번째 자막은 저희가 오히려 빼지를 않고 그 부분은 계속 강조해서 넣었습니다. 그거 아마 약간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 조계원 위원 그러면 이재명의 ‘계엄 선포 상황 요건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 이건 왜 뺐습니까?
- 증인 이은우 위원님, 저희 KTV가 한국정책방송원이기 때문에 저희의……
- 조계원 위원 불법적인 비상계엄 발표가 정책이에요?
- 증인 이은우 그거는 정책……
- 조계원 위원 해설자는 그걸 두둔하고……
- 증인 이은우 두둔하지는 않았습니다.
- 조계원 위원 아까 두둔해 갖고 방송 보냈잖아요?
- 증인 이은우 그냥 팩트만을 전달을 했을 뿐이지요.
- 조계원 위원 그게 팩트만 전달한 건가요?
- 증인 이은우 위원님, 그 정도……
- 조계원 위원 두둔하고 비호한 거지!
- 증인 이은우 그 정도는 다른 방송사도 그 시간에 다 비슷하게 했습니다.
- 조계원 위원 그게 지금 ‘그 정도는’ 사안이에요? 그게 ‘그 정도는’ 사안이에요, 지금?
- 증인 이은우 아니, 다른 방송에서도 그 시간에는 그 대통령 담화에 대한 얘기들을 많

이 했습니다. 저희만 그런 건 아니고요.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계엄 해제 이후에도 지금 풀(pool) 사였잖아요, 키(key) 사였잖아요?

○증인 이은우 아니지요, 그거는 아닙니다. 계엄 해제는 저희가……

○조계원 위원 그거 전체 방송은 KTV에서 방송을 송출한 것 아니에요?

○증인 이은우 그거는 저희가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아서 키 사로 한 거는 대통령 담화 부분을 할 때, 시간은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지만 그 담화를 할 때 12개의 각 우리 종편이라든지 지상파라든지 이런 거에 나누어 주는 역할만 했을 뿐이고요. 저 방송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 거지요.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또 저렇게 옹호했잖아요.

○증인 이은우 위원님, 그거를 옹호하는 걸로 보시면……

○조계원 위원 저 내용을 보고 국민들이 다 옹호한 걸로 생각하지 뭐로 생각하겠어요?

○증인 이은우 아니, 그 시간에 그 담화가 나왔고……

○조계원 위원 앉으세요.

○증인 이은우 예.

○조계원 위원 장관님.

○증인 유인촌 예.

○조계원 위원 (영상자료를 보면)

‘국회는 범죄자의 소굴이다’, ‘입법 독재로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유인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보다는 나라와 정부를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왜 내란이라고 정확하게 말을 못 하는 겁니까?

○증인 유인촌 아니, 그 문제는 어쨌든 지금 법적인 판단으로 넘어가 있는 사항이라 사실 저희들이 그걸 단정지어서, 더군다나 정부의 일을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계원 위원 지금 윤석열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아직도 모르십니까?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증인 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이제 법의 판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 아니, 그게 법의 판단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걸 두둔하고 비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윤석열이 행여라도 탄핵심판으로 파면되지 않고 다시 복귀했을 때 대한민국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2의 내란이 이루어지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증인 유인촌 위원님, 하여간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조계원 위원 왜 5·18 때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의 총칼 앞에 맞서서 싸웠는지 아십니까?

왜 그들이 주저하지 않고 계엄군의 총탄 앞에서 맞서 싸운지 아십니까? 양심 때문이랍니다, 양심. 그 가슴 속에 남아 있는 한 가닥 양심 그것이 그 계엄군에게 맞설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고위공직자 아니십니까? 지금 대통령의 안위가 중요합니까? 윤석열의 안위가 중요합니까?

○**증인 유인촌** 지금은 뭐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판단에 대한 결과를 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는…… 그런 입장이지요, 사실은.

○**조계원 위원**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했을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는 정말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혼란의 도가니, 다음 내란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윤석열을 비호하고 두둔하는데, 그러면 국무위원의 자격이 아니라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내란입니까, 내란이 아닙니까?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사건입니까, 아닙니까? 국회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사건입니까, 아닙니까?

○**증인 유인촌** 하여간 죄송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지금 말씀하는 것이 유인촌 장관님의 지금까지 쌓아 온, 살아온 인생을 위해서도, 앞으로 살아갈 삶을 위해서도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판단을 내려 주셔야지, 국무위원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인 유인촌** 뭐 하여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건 법적인 판단으로 그냥 맡겨 두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 두고두고 후회를 남기지 않으시려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의 자격이 정 힘드시다면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증인 유인촌** 마음에 잘 새기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임오경 위원** 예.

○**위원장 전재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오늘 배석자로 와 있는 KTV 자막 스크롤 담당 프리랜서 지교철 씨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의 알권리가 있는 차원에서 KTV에서 영웅 한 분이 탄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교철 씨는 지난 3일 밤 11시부터 비상계엄 특보에 참여해서 계엄이 불법이다, 위헌

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과 국회의 움직임 등에 대한 내용을 화면 하단의 자막으로 내보내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KTV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자 이은우 원장 등은 지교철 프리랜서에게 자막을 빼도록 지시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줘야 할 KTV가 국민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짓입니다.

오늘 이은우 원장도 나와서 계속해서 정치적인 행보는 지양하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엄령 선포에 있어서 총을 들고 국민에게 총을 겨냥하고, 시민과, 국회를 난입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치, 정치, 이게 논할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상시에 좀 정치적 개입하지 말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잘했어야 되는데 오늘은 유독 정치적, 정치적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뿐 아니라 이를 거부한 지교철 프리랜서를 해고하기 위해 별안간 새로운 채용공고를 내고 지교철 씨에게 계속 일하고 싶으면 지원서를 새로 내라면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관련하여 지교철 프리랜서와 이은우 원장, 그리고 유인촌 장관에게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교철 씨는 16년 동안 KTV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지원서를 새로 개신하도록 한 일이 이번이 처음인지 아니면 이전에도 있었는지 이걸 하나 확인을 먼저 해 주시고요.

이은우 원장, 왜 별안간 채용공고를 새로 내는 것인지, 16년간 KTV를 위해 봉직하신 분을 계엄·내란에 동조하지 않자 내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과 원장께 꼭 물어봐 주십시오.

언론 기자 출신의 지교철 배석자는 KTV의 존엄과 본 역할을 지키기 위해 내란세력에 동조하지 않고 꾸듯이 방송에 임했습니다. 장관 또한 분명히 이번 계엄이 잘못된 것이라고 사죄도 했습니다. 그런 잘못된 계엄에 반대하여 소신 있는 행동을 한 직원을 내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위원장님이 직접 물어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교철 프리랜서가 이번 불법계엄, 내란으로 인해 부당하게 내쫓기지 않도록 문체위 차원에서 저는 보호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KTV는 채용공고를 철회하고, 문체위 차원의 경고를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당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원 위원 저도 의사.....

○위원장 전재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조계원 위원 KTV는 해당 뉴스 특보를 통해서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며 국민들에게 제한된 정보만 제공하고 내란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반복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90조 2항에 따른 내란 선전·선동죄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열여섯 차례나 반복 송출했고 대통령실 출입기자를 통해서 용산 입장만을 전달하는 리포트를 네 차례 반복 송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상황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화문 요약, 비상계엄 사유·목적 등에 대해 내란의 선전·선동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며 대통령의 입장을 두둔하는 설명을 반복해서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신 보도도 편향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계엄해제안이 의결된 후에도 두 차례나 연속 담화문을 송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위원회 명의로 KTV 원장 및 관련 책임자를 법적 고발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지교철 프리랜서 님, 다리가 불편해서 오늘 목발을 짚고 오셨는데 왜 다쳤습니까?

(○지교철 방청석에서 — 얼마 전에 족부 골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서 요즘 목발을 짚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일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도 있고 또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교철 방청석에서 — 감사합니다.)

지교철 프리랜서께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 근무하셨다고 그랬지요?

(○지교철 방청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7년 동안 이 자막 관련 일만 쭉 하셨던 건가요?

(○지교철 방청석에서 — 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17년 사이에 이 자막과 관련해 가지고 이걸 넣어라, 빼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17년 동안?

(○지교철 방청석에서 — 가령 정책과 관련해서 뭔가 좀 소개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든지, 정부정책 중에서 좀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있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빼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지교철 방청석에서 — 예.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17년 동안?

(○지교철 방청석에서 — 예.)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을 한 건데 우리 선생님께서 17년 동안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이런 지시가 왜 내려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지교철 방청석에서 — 글쎄요, 잘못된 대통령과 잘못된 장관과 잘못된 기관장과 잘못된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월 2일 날 새롭게 채용하겠다고 공고가 났지 않습니까?

(○지교철 방청석에서 — 예.)

그러면 이러한 채용공고가 지시사항을 거부하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지시사항을 거부한 그 결과 채용공고가 나오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도 무방하겠습니까?

(○지교철 방청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정책방송원장님, 제가 볼 때는 문체부든 정책방송원이든 간에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이 계엄 상황에 대해서 적어도 손톱만큼 반성을 하시고 국민들께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지교철 프리랜서와 같은 분을 지켜 주시는 것이 반성과 어떤 국민들에 대한 사과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증인 이은우 위원장님, 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재수 예, 말씀하시지요.

○증인 이은우 저희가 이 건 때문에 그 공고를 낸 게 아니고, 매년 새로운 시즌이 시작

이 되면 저희가 그때는 프리랜서 공고를 내고 그리고 다시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지금까지 쭉 진행을 했고, 16년 동안 그 프로세스 속에서 우리 지교철 선생님께서 일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러면 16년 내내 1월 2일 날 채용공고를 내고 다시 재계약을 하고……

○증인 이은우 그거는 아니고요. 프로그램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저거를 내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프로그램에 약간 변동이 있는 게 프로그램 구성이라든가 이런……

○위원장 전재수 예, 좋습니다.

지교철 프리랜서님, 우리 원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지교철 방청석에서 —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처음이라고요?

(○지교철 방청석에서 — 예, 공고를 내서 다시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이런 형식으로 다시 채용된 경우는 없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이은우 그거는 여기, 저는 최근에 와서 우리 추동진 팀장이 그 계약 건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추동진 팀장이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위원장 전재수 자, 추동진 팀장님.

○이기현 위원 아니, 모르면서 그렇게 망발을 해요?

○증인 이은우 아닙니다. 그……

○이기현 위원 모르면서 그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해? 이런 것까지 감수하면서 당신 뭐야, 지금?

○임오경 위원 원장부터 사퇴하세요. 원장부터 사퇴해! 국감 때부터 뭘 잘한 게 있다고, 지금.

○증인 이은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장 전재수 원장님, 제가 물어보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지금 당장 원장님 말씀이 16년 내내 그렇게 했다는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이은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됐습니다, 앉아 주시고.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증인 추동진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저희가 전에 개편할 때라든지 그리고 봄 개편…… 보통 방송국은 봄 개편, 가을 개편이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세종시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 가지고, 공고를 냈는데 자막 스크롤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서 일을 하는 줄 알고 아무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교철 선배님을 계속 같이 일을 했던 거고요. 최근에 9월 달에도 이력서를 달라고, 보내 줬으면 좋겠다라고, 9월 달에도 개편이 있어 가지고 보내 달라고 했는데 그때 이력서는 지금 줄 수가 없으니까 간단한 소개, 약력 해서 보내 드리겠다 해 가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교철 선생님이, 지교철 선배님이 얘기한 부분들은 일부 맞는 것도 있지만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같이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 17년 동안 근무했으면 정규직하고 똑같은 거예요.

○증인 추동진 예,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게 문제가 있으면 추동진 팀장부터 사퇴하세요, 그러면. 어디 팀장이 밑에 직원들을 그냥 사퇴하라 그래?

○위원장 전재수 뉴앙스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다시 한번 정책방송원장님.

팀장님 앓아 주시고요.

원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수괴인지 아닌지는 장관님 또 원장님께서 계속해서 그것은 법적 판단을 받아 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좋습니다. 그거는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한국정책방송원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상황, 비상계엄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인식은 같이 동의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내란수괴든 아니든 간에, 내란죄에 해당하는 안 하든 간에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것이라고 인정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것을 인정을 한다면 지교철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기존에 17년 동안 해 왔던 통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저분이 17년이나 하시던 그 일은 한국정책방송원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어도 한국정책방송원 입장에서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는 반증이자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상적인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이전에 해 왔던 식으로 지교철 프리랜서가 하던 일을 못하게 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낳으면서 결국은 방송원을 떠나야 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방송정책연구원의 진정성 이런 것들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체위는, 이것은 야당의 입장이 아닙니다. 문체위 입장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 결과를 유심히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이은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이런 말씀을 유념하셔서 지교철 프리랜서의 명예, 또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것에 저항했던 한 사람이 희생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는 각별히 챙겨 봐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이은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저희들이 지켜보겠다는 말씀 아울러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이은우 원장 일어나세요.

PPT 잠깐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0월 10일 정례 제작회의에서 북한 도발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라 지시하셨지요?

○증인 이은우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왜 이런 지시 내리셨어요?

○증인 이은우 그 당시에 남북 간의 긴장이 상당히 고조된……

○이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이 대한민국 분단 75년 동안 항상 있어 왔어요.

원장, 남북관계가 심각하게 경색되었다고 본인이 확신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인근에?

○증인 이은우 그 중간에 저희가 오물풍선이……

○이기현 위원 풍선은 5월부터 날아 왔어요.

○증인 이은우 예, 계속 있었고 그다음에……

○이기현 위원 그만하세요.

○증인 이은우 경의선하고 동해선 폭파 얘기가 그때 나왔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만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밑에서 써 준 얘기 그냥 읽지 마시고요. 남북관계가 언제 좋았던 적이 그렇게, 몇 년이나 있었습니까? 미사일을 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풍선은 이미 5월부터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10월 달에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 의심을 합니다.

앉으세요.

이성구 기획관 일어나 보세요.

우리 방 보좌진한테 무인기 사건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무인기가 북한에 떴다고 하니 이런 상황 때문에 북한에 대한 기습 도발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말이 됩니까? 실수하셨지요?

○증인 이성구 예, 잘못 확인했습니다.

○이기현 위원 앉으세요.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서 떨어졌다고 발표한 날은 10월 11일입니다. 그런데 이날 제작 회의는 10월 10일이에요. 평계를 대려면 제대로 대셔야지요. 어떻게 원장과 방송기획관이 입만 열면…… 지난 김건희 황제관람 때도 그러더니 증거가 나오면 그때 말 바꾸고……

오늘도 아까 원장 뭐라고 했어요? 제가 통신자료 낼 수 있나 그러니까 바로 ‘예’ 해 놓고는 기간을 얘기하니까 ‘못 내겠습니다. 개인정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교철 선생님 관련돼서도 들통날 거짓말을 그냥 물어보면 입에서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여기 국회예요.

○증인 이은우 위원님, 그것은……

○이기현 위원 조사하면 증거가 다 나와요.

○증인 이은우 그사이에 계약은 계속 했습니다. 갱신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지요.

○이기현 위원 또 아니면 어쩌시려고 이렇게 자꾸 거짓말하십니까? 생각나는 대로 둘러대지 마시라니까요. 생각을 하세요.

이은우 원장, 누구로부터 사전에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 들은 적 있어요?

○증인 이은우 전혀 없습니다.

○이기현 위원 전혀 없지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10월 10일 이 지시 하기 전에 조만간 북한에 대한, 기습 도발이 있을 수 있으니 준비하라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증인 이은우 전혀 없습니다.

○이기현 위원 전혀 없지요?

○증인 이은우 예.

○이기현 위원 저는 전혀 없으면 10월 10일 날 그런 지시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국지전 발발 가능성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들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최재혁 전 방송기획관, 지금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을 의심합니다. 두 분이 아주 가까우셨고 또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은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이미 언론에 많이 인정되는 분입니다. 이분이 분명히 윤석열과 김용현의 계엄 관련된 언급을 어디서 들었거나 아니면 귀동냥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은우 원장한테 전달이 됐고 이은우 원장이 ‘그래, 내가 준비 해야지’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닙니까?

○증인 이은우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위원님, 제가 재난과 관련된 그 시스템을 만든 건 7월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기현 위원 7월에 만든 공문 띄워 보세요.

이은우 원장님, 고위공무원이시지요?

○증인 이은우 예.

○이기현 위원 재난안전 기본법 읽어 보셨어요? 재난이 뭔지는 아세요?

○증인 이은우 재난안전 기본법을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기현 위원 재난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증인 이은우 재난은 예를 들어서 풍수재해라든지 그런 거고……

○이기현 위원 재난과 전쟁이 같습니까, 법률적 용어로?

○증인 이은우 그래서 저기에 재난하고 준전시상황까지를 약간 구분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기현 위원 재난대응시스템 매뉴얼이라고 저렇게 쓰셨잖아요.

재난에는 사회적 재난하고 자연재해 두 개가 있어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법률적 기본 개념도 없이 고위공무원으로 봉직하시면서 지금 전쟁 상황을 7월부터 얘기하시면서 넣어 놨던 거예요.

그리고 KTV에 취재기자 몇 명 있습니까?

○증인 이은우 대략……

○이기현 위원 20여 명이지요?

○증인 이은우 예.

○이기현 위원 PD 몇 명 있어요?

○증인 이은우 PD요? PD는 그것보다 좀 더 많습니다,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기현 위원 정책방송원이 KBS입니까? 재난 주관방송사 어디입니까, KBS지요?

○증인 이은우 위원님, KBS가 주관……

○이기현 위원 YTN처럼 보도채널입니까?

○증인 이은우 그렇지만……

○이기현 위원 그만한 규모나 돼요?

○증인 이은우 위원님, 저희가……

○이기현 위원 재난방송 할 수 있어요? 전쟁방송 생중계할 수 있어요, KTV가? 왜 그

런 생각을 하셨어요?

○**증인 이은우** 아니, 위원님……

○**이기현 위원** 원장님과 방송기획관처럼 외부에서 정치적 오염되신 분들이 들어와서 권력자에게 잘 보이려고 만든 거예요.

○**증인 이은우** 위원님, 충무 사태가 발생하면 저희가 국가재난방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재난방송주관사는 KBS입니다.

○**증인 이은우** 주관사는 KBS지만 국가 비상을 대비하는 충무계획에 저희가 재난방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을지연습 때 그런 연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앉으세요.

장관님, 저희도 반성할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KTV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저희도 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KTV에 정치인들, 정치권에 있었던 사람들,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원장으로, 방송기획관으로…… 이 정부 들어서서 방송기획관이라는 자리가 새로 만들어져서 또 한 명이 더 갔어요. 예전에는 정무직 하나였는데 두 명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오로지 1명의 권력자를 위해서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 임자는 대통령실의 비서관까지 가고, 이러면서 이런 사달들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될 황제관람 만들고 해서는 안 될 전시상황에서의 생중계 기회까지 하고, 그리고 재난방송사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자임하고……

능력도 안 돼요. 취재기자 20명이, PD 30명이 어떻게 재난방송을 합니까, 정치적 상황에서? 더불어서 전쟁 관련돼서 생방송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인원도 몇 안 되는 KTV가 이렇게 스스로 위임도 안 된 업무에 대해서 자임을 하면서 이런 사고를 친 겁니다.

저는 이번에 KTV가 보여 준 행태에 대해서는 아까 장관님이 약속하셨듯이 감사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약속하셨고. 저는 이 감사결과에 따라서 원장 분명히 해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과연이지만 감사결과를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저는 윤석열도 돌아다니는 폭탄이지만 KTV도 폭탄 같아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왜 규정에도 없는 공연을 만들어서 역사한테 상납을 하고 그것을 상납한 사람은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 승진해서 가고, 뒤에 남은 사람들은 재난방송사를 자임하고 생방송으로 전쟁 생중계를 하겠다고 자임하고, 이게 뭘 일입니까? 이게 문체부의 기관이에요. 문체부장관 뭐 하셨어요? 차관님들 뭐 하셨습니까?

장미란 차관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희가 지난 예산국회 때 분명히 예산을 가지고 KTV가 그동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했을 때 ‘적어도 KTV가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은 보장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라고 차관님께서 각 방 다 도셨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KTV가 진 큰 죄가 있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일정 부분 이해했던 거예요.

특히 저희가 인건비 한푼도 삭감 안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비정규직들

모가지 잡고 ‘말 안 들어? 잘라’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장관님, 차관님, KTV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해 놓으시면 정말로 다음 국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증인 유인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장관님,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증인 유인촌** 현재는 직권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대통령은 없습니까?

○**증인 유인촌** 지금은 탄핵소추돼 있는 상황입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국무위원으로서 보시기에 탄핵당한 윤석열 씨는 대통령 자격이 있어 보입니까? 국무위원으로서 보시기에.

○**증인 유인촌** 그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판단할 수 없는……

○**민형배 위원** 국무위원으로서 보시기에, 윤석열 씨가 지금 탄핵이 진행 중인데 대통령……

○**증인 유인촌** 현재는 업무가 정지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민형배 위원** 정지돼 있는데, 윤석열 씨가 지금까지 한 걸 쭉 보시면 대통령 자격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증인 유인촌** 그런 대답을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민형배 위원** 여기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무위원이시니까.

없어 보이는 거지요?

○**증인 유인촌** 아니, 제가……

○**민형배 위원** 말씀하셔도 됩니다.

○**증인 유인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 말씀을 하셔야지요, 국무위원이시니까. 이 나라의 국무위원이시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이시니까 대통령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 정도는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증인 유인촌** 일정리 다 끝나고 제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때 누가 그런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있어 보인다는 말씀이십니까, 없어 보인다는 말씀이십니까?

○**증인 유인촌** 유보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제가 제 질의 끝날 때쯤, 고민 좀 하셨다가 이따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그 말씀을 오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것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면)

KTV, 그러니까 정책방송원 분들…… 남색 바탕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원장님 또 전화하는데요. 행정부 얘기만 하고요. 오세훈 시장……’, 저것 말씀하신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어제 SBS 보도입니다.

얼른요. 박준석 보도부장님? 이승훈 제작부장님? 이찬구 편성부장님? 이성구 기획관님? 어느 분이세요? 어느 분이십니까?

다음 장 하나 더 넘겨 보세요.

추동진 팀장이세요?

○증인 추동진 예, 제가 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 그래요?

원장님, 아까 '우리는 정책방송이라 다른 건 안 한다' 그러셨지요?

○증인 이은우 예.

○민형배 위원 그런데요, 그날 12월 3일 특보 546회 내용을 꽉 봤더니요 방송 내내 계엄사령관을 누구로 임명했다, 포고령 1호를 공표했다, 경찰청장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각 언론사와 외신 보도가 어떻게 나왔다, 심지어 환율까지 보도하던데 다른 것을 안 했나고요? 금방 불 걸 왜 거짓말을 하세요?

○증인 이은우 위원님, 지금 우리 지교철 선생님께서 담당하는 게 하단 스크롤입니다. 그래서……

○민형배 위원 계엄 해제 소식을 바로 안 내보내고 30분 뒤에 내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까 조계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계엄 발표하는 내용만 계속…… 다른 방송보다 한 열 배쯤 더 틀었어요. 알고 계셨잖아요?

○증인 이은우 저희가 계엄 해제 소식은 속보로……

○민형배 위원 30분 늦었다니까요. 다시 가서 봐 보세요. 다른 방송에서 다 보도를 하는데 KTV만 30분 늦게 했어요.

눈치본 건가요? 저게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한 건가요?

○증인 이은우 계엄 해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형배 위원 그렇습니다.

○증인 이은우 저희가 바로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안 했다니까요.

○증인 이은우 그러니까 방송은 다음날 아침에 했지요.

○민형배 위원 그다음에 담화 방송을 반복 송출해서 계엄을 미화했어요. 이것은 내란 선전한 거예요, 선동한 거예요. 이미 해제가 됐는데……

○증인 이은우 해제가 된……

○민형배 위원 그런데 지금 아니라고 계속 그리고 계시고.

더 중요한 것, 왜 환율도 하고 언론사, 외신 보도도 하면서 시민들이 계엄 반대하는 목소리……

한번 올려 보세요.

다른 방송은 다 계엄 반대한다는 목소리 하고 있는데 KTV만 안 하지요? 빼라 그러고, 저렇게.

○증인 이은우 저희가 저런 상황…… 이런 취재망이 없어서……

○민형배 위원 이은우 원장님, 지금 전에부터 계속 보니까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으로 전혀 부적합한 분이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거짓말까지 계속 하고 계세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리고 계세요. 제가 사실 옆에 조계원 위원님 질의할 때 당장 그만두라고

여기까지 소리 지르고 싶었는데 참은 거예요. 왜 거짓말을 계속 하세요?

세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시민들의 계엄 반대 목소리를 보도하지 않았다, 계엄 해제 가결 소식을 다른 데보다 30분 늦게 보도했다, 담화 방송을 반복적으로 송출해서 계엄을 미화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아닌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KTV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지금 딱 결론이 나는 거예요.

정책만 하시든지, 환율도 보도하고 외신 보도도 하고 언론사가 어쩌고 경찰청장이 어쩌고까지 다 하는데 왜 시민들 목소리는 안 전해요? 정책이에요, 이런 것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그리고 방송국을,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서 공표도 안 했는데 왜 나가셨지요? 어디 가신 거예요? 새벽 3시 반께 나가셨잖아요.

○**증인 이은우** 제가 숙소와 가까워서 숙소에서 모니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 자세로 일을 합니까? 비상계엄이 진행 중이고 정부에서 아직 계엄 해제 발표도 안 했는데? 숙소 가서 쉬려 가신 거예요?

○**증인 이은우** 아닙니다. 숙소 가서 계속 모니터를 했지요. 하고……

○**민형배 위원** 직원들은 현장에 두고 책임자는 집에 가서 쉬고?

○**증인 이은우**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날은 3시쯤, 저희가 1시 35분에……

○**민형배 위원** 앞으로 가능하면 국회 오지 마세요, 그런 태도로 하시려면. 너무하시잖아요!

장관님, 조치하십시오.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분들이 KTV 지적을 했는데요, 이번 상황 관련해서 조치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전두환의 탱크는 5월 광주시민들의 주먹밥 나눔 문화 짓밟지 못했고요. 박근혜 독선도 광화문 광장에 나온 시민들 촛불 끄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민들 속에는 80년 5월부터 이어진 민주주의의 DNA가 있습니다. 주먹밥이 국회 앞의 강추위에 몸을 녹이는 선결제 커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응원봉을 든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것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저것 여러 번 보셨지요? 장관님, 여러 번 보셨지요?

○**증인 유인촌** 예.

○**민형배 위원** 이즈음 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문화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국가의 이런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권력자들의 탐욕이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될 때 그리고 시민들이 저렇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문화적인 방식으로 표출하고 있을 때 이럴 때 문화부는, 특히 정부대변인을 맡고 있는 문화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또 이번에 뭐가 아쉬웠는지 이것으로 마무리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증인 유인촌** 일단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또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을 문화적인 방식으로 위로도 할 수 있어야 하고 해소도 시켜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그런 역할을 중요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장관님,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장관이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결과적으로 내용은 비상계엄 옹호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했던 이유 중 하나로 이야기한 야당에 의한 예산 삭감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문체부가 제출했던 예산액 중에서 국회 심사 과정을 통해서 삭감된 금액이 어느 정도 입니까?

○**증인 유인촌** 저희들 경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박수현 위원** 528억 정도 됩니다. 문체부 전체 7조 1214억 중에서 528억 삭감이 됐는데 이 정도 삭감이 된 것을 가지고 문체부가 내년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집니까?

○**증인 유인촌** 아니, 문체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렇지 않지요?

○**증인 유인촌** 예.

○**박수현 위원** 그러므로 장관께서 정부대변인으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글을 읽으셨는데 그것은 모순입니다. 윤석열이 이야기했던 계엄의 이유, 예산 삭감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상반된 입장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요.

문체부 역시 내년도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의 삭감액이었고 또 이것은 다시 협상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증액을 통해서 얼마든지 삭감액을 또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부 여당이 증액 협상에 전혀 응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왜 이렇게 예산 삭감으로, 야당 탓으로 돌렸을까라고 하는 것, 지금 국민들께서는 야당이 예산을 삭감해서 윤석열 정부가 일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일으켰고 그것이 그럴 만도 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도대체 이렇게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입력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바로잡아 보려고 합니다.

내년도 국가 예산 전체가 677조 규모인데 이 중에, 만약 윤석열의 말대로 정부가 일을 못 할 정도로 야당이 삭감했다면 이 중에 적어도 한 200조 정도는 삭감을 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677조 중에 야당은 겨우 4.1조 원밖에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5년간 연평균,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국가 예산 삭감 평균은 5.8조 원입니다. 그 5.8조 원과 4.1조, 도대체 어디에서 이 예산 삭감 때문에 일을 못 해 먹겠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업별 예산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비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의 예비비는 평균 3조 원 수준이었어요. 작년도 예비비 집행액이 1조 3000억으로 집행률 29%에 불과했습니다. 금년도 집행액이 6000억으로 10월 말 기준 집행률 14.3% 수준에 불과해요. 평균 이렇게 쓰고 있는데 내년도 예비비를 갑자기 4조 8000억 원을 편성해서 요구를 했어요. 뜯금없이 과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그중에 절반만 깎았습니다, 2조 4000억. 그러니까 2조 4000억을 편성해 줬어요. 이 2조 4000억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집행액 1조 3000억, 올해 6000억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예비비를 깎아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국고채 이자 비용을 근거 없이 깎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현실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내년 발행 예정인 국고채의 평균 조달금리를 최근 시장금리 실적치를 감안해서 3%, 정부는 3.4%였습니다만 현실화하면서 5000억 원 정도를 삭감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년에 두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고채 이자가 부족해질 일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민생경제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또한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주장한 예산을 살펴볼까요? 청년도약계좌 260억 원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감 이유는 최근 2년간 실집행률이 저조했고 예상 실적에 대한 과다 추계로 불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감을 야당이 혼자 했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 수요에 대한 과다 추계, 행정 절차 미비 등의 이유로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가 삭감을 합의한 것을 예결위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야가 합의 삭감한 것입니다. 어떻게 야당이 단독으로 삭감했다는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가요? 청년 일경험 지원 46억 원 삭감인데 이것은 타 사업과 중복이 되고 과도한 해외 인턴형 지원이 2배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 역시 여야 합의로 삭감한 것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무슨 이런 것들을 깎냐고 야당을 맹비난한 것인데요. 384억 원 삭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져 보니 아이돌보미 인력 부족으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더 있지만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대통령비서실·겸찰청·감사원 등의 특활비와 특경비를 모두 삭감했기 때문에 못 해 먹겠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 특활비와 특경비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명자료를 낼 수 있는 것은 내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채로 협상에 들어간 것이에요. 삭감이 완료된 것도 아닙니다, 협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소명자료를 냈던, 필요성과 집행내역을 소명한 대통령경호처와 국세청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는 전혀 삭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다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산자위에서 국회의원이 질문합니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에게. ‘이 말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장관이 뭐라고 답변한지 아십니까?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한 품도 깎은 것이 없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장관이. 누가 대통령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이런 거짓 정보를 입력해서 비상계엄까지 이르게 했는지, 저는 유인촌 장관도 국무위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정말 비상계엄의 원인이라고 얘기했던 예산 삭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전혀, 거짓말을 믿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이 국회방송을 통해서 바로잡고 또 문체부도 방

금 말씀하셨듯이 7조 1000억 원의 예산 중에 겨우 528억 삭감된 상태이고 증액 협상이 남아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어떤 거짓된 정보, 자료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했고 또 비상계엄을 해 놓고도 그런 말로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것 안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원장, 원장직무대행 나와 주십시오.

안 보여서 저쪽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12·3 내란 사태 당시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증인 유현석 서울에 있었습니다.

○김재원 위원 내란 사태 사전에 인지하거나 용산 대통령실하고 소통한 적 있습니까?

○증인 유현석 전혀 없었습니다.

○김재원 위원 12·3 내란 사태 다음 날, 4일 날은 어디 있었습니까?

○증인 유현석 서울에 있었습니다.

○김재원 위원 PPT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12월 3일과 4일 대행의 출장 내역입니다. 3일 날 일찍 잠들었어도 워낙 큰 비상사태라서 내란 상황 그 당시에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던 때였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이 새벽에 해제됐는데 4일 날 모든 일정 취소하고 본원으로 내려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 출장 계속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해외에 출장 중이던 기관장들도 부랴부랴 돌아왔습니다.

기관 자체에서 운영하는 운영위 점검 회의, 업무 회의 이런 게 더 중요합니까? 본 위원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원장이 공석이라고 임원이라고 부원장만 있는 상황에서 본원 누가 지킵니까?

○증인 유현석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재원 위원 아니요.

지난번 국감에 나주 본원 근무 등 한시한다고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징별성으로 내년도 예산의 여비 등이 대폭 감액됐다는 사실 별씨 잊었습니까?

○증인 유현석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다음 PPT 주십시오.

10월 국감에서 지적받고도 유현석 대행의 출장은 계속됐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출장 중독입니다. 11월 한 달간 나주 본원 근무가 또 딱 이틀입니다.

유현석 대행, 국감장에서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증인 유현석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 근무라는 게 서울 분원 근무입니다. 스마트워크 근무고요. 거기서 정상적으로 결재하고 회의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기관장이 무슨 비상사태가 발생을 하면 본진을 지켜야지요. 성 벼리고 다른 데 가 갖고 출장…… 그런 데 가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증인 유현석** 계엄 해제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그다음 날 제가 당연직 위원장으로 주재하는 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김재원 위원** 맨날 그렇게 평계 대시잖아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국감에서 지적했듯이 유현석 대행, 피의자 윤석열의 대선캠프에서 홍보 총괄했었고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증인 유현석** 그것은 아니라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번 12·3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대행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홍보 총괄했잖아요?

○**증인 유현석** 예, 경선 때 했었습니다.

○**김재원 위원** 김건희 라인 아닙니까?

○**증인 유현석** 절대 아닙니다.

○**김재원 위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인 유현석**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는……

○**김재원 위원**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상계엄 잘한 일입니까?

○**증인 유현석** 개인적으로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같은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어떻게 같은 생각이오?

○**증인 유현석** 국무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계엄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재원 위원**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일이라고 왜 똑바로 얘기를 못 합니까?

윤석열 내란죄 맞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유현석** 그 부분은 저도 아까 장관님이랑 같은 의견입니다.

○**김재원 위원** 그것도 얘기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디 한 사람의 국민이라고 운운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증인 유현석** 저도 한 사람의 국민입니다.

○**김재원 위원** 그런데 내란이 아니라고요?

이제 임기 끝났지요?

○**증인 유현석** 임기 끝났고요.

○**김재원 위원** 빨리 사퇴하십시오.

경제가 매우 힘듭니다 그나마 콘텐츠 파트는 노력하면, 힘들여서 하면 수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같이 본진 외면하는 사람에게 콘텐츠진흥원 맡길 수가 없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도 경영본부장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근무조차 하지 않고 서울 출장만 다니고 있는 유현석 대행 근무할 이유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되고 해제되어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장관, 복무기강이 엉망입니다. 유현석 대행이 계속 대행 수행해야 됩니까? 군이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루빨리 유현석 대행 임기 종료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장관, 12·3 내란 사태가 시작된 윤석열 비상계엄 발표에 수어통역이 없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증인 유인촌 예.

○김재원 위원 비상계엄의 부적절성은 차치를 하고서라도 그 자체로 비상 발표 상황에서 수어통역이 필요 없다고 보십니까?

○증인 유인촌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아마 좀 그런 방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 방법이 아니라 수어 제공돼야지요. 비상계엄 발표 당시에 뉴스 특보 편성한 지상파 3사, 종합편성채널 4사 중에 KBS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송사에서는 수어통역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계엄 발표 미리 알고 준비한 KTV 방송에서도 수어통역 없었습니다.

그 결과 43만 명의 청각장애인들은 국가 비상사태인 계엄령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한 줄짜리 자막 제공됐어요. 그것 못 봤으면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수어를 보완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자막 지나가 버리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결국 비상계엄 상황에서 청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 보장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문체부 소관 법률인 한국수화언어법 위반한 것입니다. 한국수화언어법은 청각장애인의 한국수어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에 부역하기 위해 6시부터 방송 준비한 KTV 역시 수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KTV가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계엄에 동조하고 내란에 부역하기에 급급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 주는 증거 또 하나 발견된 것입니다. KTV가 수어 같은 건 신경도 안 쓰면서 하다 하다 못 해 내란수괴 나팔수, 정권의 주동이가 된 것입니까?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에게 구타를 당해서 사망한 농인 김경철 씨 비극이 있었습니다. 정보접근이 농인들한테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생명의 위협으로까지 올 수 있는 일입니다. 국가 비상상황에서 정보접근권 보장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는데 이번 내란 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장관, 해당 법률 소관한 장관으로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유인촌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장애인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장관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이 그래도 장관은 장관의 태도와 몸짓에서, 지금 방송 보시면서 반성의 몸짓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때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고 정의롭게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도록 양심의 소리를 고하고 떠나십시오. 그것이 어릴 적 ‘전원일기’를 보면서 자란 팬이기도 한 저의 그리고 문화예술인으로서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제 고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유인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용호성 차관, 앞서 말씀드렸던 계엄사령부 포고령 2호, 3호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나요?

○증인 용호성 검토라고 그러셨나요?

○양문석 위원 예.

○증인 용호성 당일날 뉴스.....

○양문석 위원 포고령 2호·3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혐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엄령 해제 이후에 문체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검토한 적이 있나요?

○증인 용호성 부처 차원의 입장을 정리한 적은 없습니다.

○양문석 위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기본권이지요?

○증인 용호성 예.

○양문석 위원 그리고 언론·출판의 자유와 관련돼서 이 헌법의 의미를 지키고 수호하고 확장해야 되는 게 문체부의 기본적인 역할이지요?

○증인 용호성 예.

○양문석 위원 헌법의 권한을 국민들이 침해 당할 수 있었고, 당했고 했는데 주무 담당 부처로서 검토조차 안 했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입장도 발표를 안 했다고요?

○증인 용호성 문제의식은 느끼고 있었지만 현재 사법 절차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결론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문석 위원 사법 절차,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계엄령 관련해 가지고 계엄법 제9조 군사상 필요할 때만 언론·출판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요?

○증인 용호성 예.

○양문석 위원 그러면 명백하게 위법이지요, 위헌이지요?

○증인 용호성 문제가 있다고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양문석 위원 왜요?

○증인 용호성 법적인 판단을 제가 최종적으로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양문석 위원 왜요? 법적인 판단 재판부만 하는 거 아니지요. 기본 상식과 원칙이 있고 최소한의 법률적 근거를 제시할 때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차관, 군사상 필요할 때만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요. 그게 계엄법 제9조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군사상이라는 이야기 없지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이 포고령 제3호가 명백하게 위헌이고 위법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문화부가 계엄사령관과 국방부를 고소해야지요. 위헌·위법 아닙니까? 재판부 판단 받아 봐야 됩니까? 뚜렷이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이게 12월 3일 밤 11시 반에 나왔던 계엄군의 포고령입니다.

문화부를 비판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영역이에요. 언론 자유가

침해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처도 검토도 안 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 문화부가 왜 필요해요?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지켜야 되는 문화부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국민들이 세금으로 월급 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권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검토도 안 해? 이게 재판부가 결정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황성운 실장, 검토할 생각도 안 했어요? 장관·차관이 시키지 않으면 검토 안 해요?

○증인 황성운

○양문석 위원 기조실장!

○증인 황성운 예.

○양문석 위원 그 자리에 왜 있어요! 문화체육부 앞으로 언론 관계 다 업무분장에서 떼내야 되나요? 능력 없으면 하지 마세요! 왜 검토 안 했어요? 포고령 2호, 3호 왜 검토 안 했냐고요!

○증인 황성운

○양문석 위원 앉으세요. 말하기 싫다 이거지요.

국민소통실장 유병채! 담당 국장이지요?

○증인 유병채 예?

○양문석 위원 담당 국장이지요?

이것 검토 누가 해야 돼요? 언론 자유가 침해받고 출판 자유가 억압받는, 심지어 불법적으로 억압받는 이 부분, 문화부 누가 검토해야 돼요? 누가 담당 국장이에요? 유병채 국장 아니에요?

○증인 유병채 미디어국이 소관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

○양문석 위원 왜 검토 안 했어요?

국장, 실장, 차관! 당신들이 장관을 제대로 보좌하려고 하면 이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문화부가 먼저 고소고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을 고소하고 계엄사령관을 고소하고 국방부를 고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헌법적 가치를 당신들이 지켜야 되는데 그 헌법적 가치를 깡그리 군홧발로 무시한 대통령과 계엄사령관, 국방부에 대해서 당신들은 한마디도 안 했단 말이에요! 내란 동조예요! 당신들 지금 내란 동조하는 거예요.

내란 폭동 동조하는 문화부 국장, 실장, 차관, 장관! 존재 이유가 없어요. 정말 위험하고 필요할 때 정부가 있어 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항상 정부는 없었어요, 이 정권 들어와서. 그리고 당신들은 거기에 동조했던 내란 공범이고 내란 동조자예.....

위원장님, 상임위 이름으로 저 네 명을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저는 오늘 아주, 사실은 깊은 분노와 놀라움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라는 용어 아시지요? 베널리티 오브 이블(banality of evil)인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평범하다는 게 아니라 다들 직무적 순응성, 소극적 동조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가 악이라는 게 악의 평범성의 주제입니다.

형법 87조를 보면 부화수행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중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만

따라서 그가 하는 것을 따라 행동함' 이게 부화수행이고 형법 87조 내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역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적극적인 거겠지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하는 겁니다. 형법 90조에 선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이해하도록 잘 설명해서 널리 알리는 일이 선전이 됩니다.

유인촌 장관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10일 정부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하셨을 때 사실상 이게 선전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 지금은 아시겠지요? 이해를 하도록 하는 건데 제가 하나만 더, 장관 대답 듣기 전에 여쭙겠습니다.

그날 정부대변인 자격으로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건의하거나 혹은 하지 않기를 건의한, 지금 여기 나와 계신, 출석한 공무직 여러분 중에 누가 혹시 있습니까, 차관을 비롯해서?

○**증인 유인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문안이 작성돼서 내려온 것을……

○**강유정 위원** 작성돼서 내려온 것을 읽는……

○**증인 유인촌** 그러니까 조금 더 순하게, 아마 순화시켜서 좀 수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러면 단순히 선전 임무만 한 것이 아니라 부화수행 이상의 부역을 했다는 말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4·19 이후에 '국민에게 드리는 감사문'이라는 문서 있는 것 아십니까?

○**증인 유인촌** 잘 모르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모르시면 안 되지요. 4·19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건 우리나라 헌법에도 돼 있는데, 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최소한 '어제 국회 앞에 가셔서 위협을 무릅쓰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만들어 주신 국민에게 감사합니다' 정도로만 썼었더라도, 그 정도의 인지와 품격이 있었더라도 장관 지금 이렇게 혹독한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정부대변인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 대변인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거기에는 윤석열 담화문 내용을 반복하고 있고, 반성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이 부분과 거리를 뗀 '국민에게 감사합니다'라고만 하셨어도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행위로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탄핵소추 과정을 오히려 예로 들면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와' 이런 선언을 하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날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유인촌** 예.

○**강유정 위원** 그런데도 내란이 아니고 그 자체에 대해서 아직도 아무 말씀을 못 하겠다라는 그 태도는, 그 불일치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증인 유인촌** 그것을 제 판단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강유정 위원** 왜요? 직무적 수행성 때문에요? 이 내란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대통령이 당신이 선언한 대로, 윤석열이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을 보

호했습니까? 그날은 국민을 보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헌법적인 건 인정하십니까? 내란까지 안 가고 반헌법적인 행위라는 건……

○**증인 유인촌** 글쎄요, 저는 이번 계엄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유정 위원** 계엄의 현상, 지금도 영상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 영상 속에 시민에게 장갑차가 오고 총부리를 들이미는 그 상황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내란죄가 아니라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하시느냐고. 계엄은 나쁜데 반헌법은……

○**증인 유인촌** 계엄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강유정 위원** 잘못이 아니라 반헌법이냐고 물었습니다.

○**증인 유인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계엄은 잘못됐지만 반헌법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실제 군대가 움직이는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정말 아주 답답하고요.

김대진 총장에게 묻겠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으로 묻겠습니다. 왜 학생들을 거리에 나가게 했습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당시에 저로서는 학생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었고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벗어나서 귀가시키는 방법 또는 학교에 남아 있게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런데 우리 관리감독 기관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귀가하는 게 좋겠다고 하니 그것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수용하는 편이 차라리 덜 위험하지 않겠나라는 단순히 학생 안전 차원에서의 접근이었습니다.

○**강유정 위원** 관리감독 기관의 말을 따르는 것이 누구의 안전을 지키는 겁니까? 진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밤 11시 계엄사령부가 첫 번째 포고령을 이미 발표했고, 요즘에 학생들은 모두 다 자신의 개인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헬기, 장갑차, 무장한 군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그것에 대한 판단은 정말 하기 어려웠고요.

○**강유정 위원** 하기 어려웠다면 직무적 순응성으로서의 이 포고령 발표나 출입 통제 지시문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저는 총장이라는 관리자가 아니라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묻고 있는 겁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그 점에 대해서……

○**강유정 위원** 차라리 교문 안에서 내가 지켜 주겠다라고 했던 게 훨씬 더 학생들에게 안전하지 않았을까요? 학교는 매우 익숙한 공간이고 그 안에서 야간 작업도 있고, 저도 한예종 강사 해서 압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예, 압니다.

○**강유정 위원** 학교라는 공간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나가고, 바로 교문을 걸어 나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학생들이 이 시간에, 그때 당시는 계엄 중이었어요. 계엄 중에 거리로 내보는 게…… 혹시나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이 내란이다 아니다 말을 못 하는 게 누구를 겁내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누구를 겁내서, 이 포고령 내용에 따라서 출입 통제 지시문을 받았을 때 누구의 안전을 고민하셨는지, 진짜 학생의 안전이었는지 아니면 총장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였는지 보시는 분이 판단하십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아니요, 전혀 그런 것은……

○**강유정 위원** 포고령이 11시에 됐고 새벽 4시 26분에 대통령이, 윤석열이 해제를 의결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해제하겠다고 아니고 해제할 것이다, 국무위원들이 덜 왔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11시부터 4시간 반 동안 어쩌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포에 떨었을 게 걱정도 안 되셨습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걱정 많이 했습니다.

○**강유정 위원** 걱정이 됐는데 내보냈습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예, 걱정 많이 됐는데 다만 저로서는……

○**강유정 위원** 아니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고요, 들으시는 시민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국민 변명이라든가 대국민 정부 변론을 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감사하는 입장 표명을 훨씬 더 먼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듣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KTV가 김건희·윤석열 두 부부 방송사로 전락해 버린 이은우 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은우 원장님, KTV가 역대 주관방송사로 지정된 적이 있었나요?

○**증인 이은우** 주관방송사요?

○**임오경 위원** 예.

○**증인 이은우** 어떤 주관방송사를 말씀……

○**임오경 위원** 중계 주관방송사로요.

○**증인 이은우** 중계의 키 사로 지정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역대에 있었냐고 질의했습니다.

○**증인 이은우** 예, 금년에도 저희가……

○**임오경 위원** 역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역대 있었느냐고요.

○**증인 이은우** 그 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장관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증인 유인촌** 잘 모릅니다.

○**임오경 위원** 역대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바이든-날리면’ 사건 이후 처음입니다. 원장님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계엄 당일 대통령실은 KTV를 중계 주관방송으로 지정하여 18시경 KTV에 중계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중계 담당 PD가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방송을 준비했고 KTV는 21시 18분에 주요 언론사에게 중계를 예고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이은우** 예,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계엄 당일 KTV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아 브리핑룸으로 향했고 거기에서 최재혁 비서관을 마주쳤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이은우** 그렇게 증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최재혁이 대통령실 브리핑룸 자리에서 생방송을 준비했던 것을 보면 최재혁도 비상계엄 선포 여부를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은 높지요? 그렇지요, 원장님?

○**증인 이은우**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임오경 위원** 높지요?

○**증인 이은우** 그 당시에 현장에 있던 PD는 끝까지 시간과 내용을 모르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다른 쪽으로 흘러가지 마시고. 높겠지요?

최재혁 비서관은 전 KTV 기획관이었던 만큼 본인이 장악하고 있는 KTV를 통해 계엄 발표를 중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국감장에서, 몸이 아프다 해서 미꾸라지처럼 쑥쑥 빠져 다니면서 국회의원을 기망하고 국감장에 나오지 않는데 또 계엄 선포에 동조를 하면서, 지금 저희는 내란동조범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은우 원장은 계엄 발표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거나 대통령실과 직원들로부터 괴상당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몰랐다고 하는 것은……

○**증인 이은우**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예, 몰랐다고 말씀하시면 대통령실에서 괴상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관님, KTV가 미리 알고 사전에 계엄 선포 방송과 뉴스 특보 등을 준비했다면 이것은 분명 심각한 내란 동조 행위이며 이은우 원장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유인촌** 제가 뒤늦게 보고받은 바로는 그 촬영팀들이 계속 대기했다가 또 해제됐다가 대기했다가 이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사전에 알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 KTV는 중계 담당 PD가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9시 18분 주요 언론사에게 중계를 예고했고, 12월 3일 18시경에 KTV는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직접 있었고.

○**증인 유인촌** 아마 내용은 몰랐을 겁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게 다들 답변하십시오.

○**증인 유인촌** 총리 이하 모든 국무위원들도 전혀 이런 것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임오경 위원** 그리고 앞서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을 잘 짚어 주셨는데 수어 통역 의무화, 법제화시킨 사람이 본 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43만 청각장애인께 방송사를 대신해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 이어 가겠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탱크로 밀고 들어오는 계엄군 진입을 막는 모습이 전 세계 및 국내 모든 채널에서 생중계되고 있을 때 이은우 원장님, KTV는 그 시간대에 어떤 중계를 하고 있었습니까?

○**증인 이은우** 저희가 국회 출입기자도 없는 상황이고 또 사회부 기자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기자가 총 2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중에 공무원은 8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킹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스튜디오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20명이나 되는데 긴급 상황에서, 계엄 선포까지 하는 현장에 계셨는데 현장으로 출동을 시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증인 이은우** 그런데 그게……

○**임오경 위원** 20명은 사람 아닙니까? 기자 아닙니까?

○**증인 이은우** 그런데 이제 대부분 출입처 위주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렇게 답변하시면 왜 KTV가 존재해야 되는지, 여기를 왜 폐지시켜야 되는지 이유를 더 정확하게 답변으로 지금 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존재 여부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국민방송 호칭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제가 어떤 중계를 했느냐고 지금 물었는데 윤석열 계엄 선포만 앵무새처럼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막 내보내는 그 직원은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계약 해지를 통해서 다시 재공모한다고요? 지금 이게 말이라고 여기에서 답변하고 계십니까?

KTV는 국민방송인데 국민의 안위가 짓밟히는 모습은 왜 방송하지 않았을까요? 국민방송 호칭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저는 이 호칭도, KTV 존재 자체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서 현정을 유린하는 망나니 같은 짓을 방송하지 않았던 것은 전형적인 내란 동조이자 부역자 같은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지요. 제가 또 보니까 KTV, 10월 원장 지시로 북한 기습도발 시 생방송 제작안도 만든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즉 KTV는 국민방송이 아닌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전쟁 도발 방송, 내란 동조 방송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증인 이은우** 위원님,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민형배 위원** 뭐라고!

○**임오경 위원** 제 말이 심하다는 답변을 그렇게 함부로 지금 답변하지 마십시오.

○**증인 이은우** KTV에서 고생하는……

○**임오경 위원** KTV에서 한 행동을 한번 생각하시라고요.

○**증인 이은우** KTV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임오경 위원**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할 때 그 현장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방송사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민형배 위원** 무슨 말이 심하다는 거예요!

○**증인 이은우**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임오경 위원** 직원들은 그렇게……

○**이기현 위원** 직원들 고생하셨는데 원장이 그렇게 만들었잖아!

○**임오경 위원** 직원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기현 위원** 원장이 무슨 낯짜으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 고생하는 직원들 망신을……

○**임오경 위원** 직원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대한민국, 또라이 리더 하나 잘못 뽑았더니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리더가 제대로

들어와야지요. 어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해서 또라이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지금 뭘 잘했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심했어요? 그 현장에 계셨어요? 그 탱크가 밀고 들어올 때 몸으로 한번 막아 봤어요? 국회를, 입법기관을 창문 깨고 들어올 때 우리 국민에게, 시민에게 총 들이댈 때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 공포에 한번 시달려 봤어요?

저희 국회의원은, 야당 국회의원들은 목숨 걸고 담 넘어서 피명 들어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왜? 계엄령 선포 해제하기 위해서요. 이 자리를 비롯해서 누구 하나 감사하다는 인사 한 말씀 한 사람 있어요? 저도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날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하지만 국민한테,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말 못 하고 있는 겁니다.

KTV는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정규방송 편성에서만 ‘윤니크’를 없애고 유튜브에서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은우 원장님, 이것 왜 안 없애는 겁니까?

○증인 이은우 지금 시기에 없애는 것은 적절치 않고, 지금 콘텐츠를 거의 올리지 않기 때문에 휴면 채널로 돼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맞지 않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직원 재공모하는 것은 맞습니까? 그것은 맞아요?

○증인 이은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임오경 위원 윤니크 채널 영상 댓글을 확인했습니까? 해 봤습니까?

○증인 이은우 예, 들어가서 좀 봤습니다.

○임오경 위원 KTV에서 내란수괴 홍보 채널을 버젓이 운영하면서 윤니크는 내란 선동, 내란 동조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내란 선전, 내란 선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형법 제90조가 규정하는 내란 선전·선동의 죄에 해당합니다. 당장 윤니크 채널 폐쇄하시겠습니까?

○증인 이은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오경 위원 폐쇄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폐쇄하시겠습니까?

○증인 이은우 위원님, 지금 그 시기가, 폐쇄까지 가기에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임오경 위원 KTV는 정규방송 편성에서만 윤니크를 없앴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장관님, 윤니크 채널 폐쇄하시겠습니까?

○증인 유인촌 글쎄요, 저는 그 채널을 본 적이 없는데요.

○임오경 위원 다 폐쇄한다고 해 놓고도 지금 버젓이 유튜브에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인 유인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지금 정규방송에서는 폐쇄했습니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채널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꼼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댓글들, 누구를 옹호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계엄령 선포, 계엄 후, 국민이 아닌 내란수괴자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것 당장 폐쇄시켜 주십시오. 장관님이 직접 나서십시오. KTV는 이은우 원장 리더십으로는 절대적으로 아무 일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진짜 위험한 원장님이십니다. 핵폭탄 하나가 버젓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시는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부탁합니다. 이것 폐쇄해 주십시오.

○**증인 유인촌** 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장관님, 윤석열의 내란 사태가 다시 재발해서는 안 되겠지요?

○**증인 유인촌** 이런 일이 더 있으면 안 되지요.

(전재수 위원장, 임오경 간사와 사회교대)

○**조계원 위원** 윤석열이 우리 국회에 대해서 범죄자 집단의 소굴 그리고 입법 독재로 국가의 사법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종북·반국가 세력들에 대해서 척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척결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증인 유인촌** 예.

○**조계원 위원** 살을 빌라내고 뼈를 도려낸다는 말입니다.

윤석열이 다시 복귀하는 순간 다시금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내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위험이 너무도 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장관님께 이제 대한민국의 장관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란에 대해서 철저히 막아서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판단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고요.

○**증인 유인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계원 위원** 않을 거다가 아니라, 생각해서가 아니라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관님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증인 유인촌** 이런 기회가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리스크, 최대의 리스크는 바로 윤석열 리스크라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증인 유인촌** 뭐, 그런 대답을……

○**조계원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디스카운트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졌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유인촌** 지금 여러 가지 대외 신인도라든지 시장의 혼란 상황으로 봐서는 계엄의 여파가 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대한민국의 주식 그다음에 세계 각국의 여행주의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대한민국의 디스카운트가 심각하게 진행되었는데 그 위기를 극복한 힘이,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고 복원해 낸 힘 그게 과거 촛불혁명의 뒤를 이은 빛의 혁명으로 K-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운 우리 국민들의 힘이었다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증인 유인촌** 그동안에 어쨌든 많은 부분이 좀 멈춰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최대한 단시간에 극복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조계원 위원** 지금 여행 위험국가로 대한민국이 지정되지는 않았지요?
- 증인 유인촌** 예, 뉴질랜드가 유일하게 했는데 이제 다 해제됐습니다.
- 조계원 위원** 다 해소됐지요?
- 증인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 조계원 위원** 그 힘이 누구의 힘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우리 국민들의 힘 아니겠습니까?
- 증인 유인촌** 예,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다 협조를 해서 빨리 회복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계원 위원** 국회 앞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 준 위대한 빛의 혁명이 윤석열이 만들어 낸 대한민국 디스카운트, 대한민국의 위기를 해소해 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오히려 세계인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고,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을 문체부에서도 잘 홍보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증인 유인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조계원 위원** 그리고 최용천 국가유산청장님, 김건희 씨가 국가원수인가요?
- 국가유산청장 최용천** 아닙니다.
- 조계원 위원** 그런데 왜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된 휴관일에 세계문화유산인 종묘를 김건희 씨가 독단적으로 이용하게……
- 국가유산청장님이 허가를 해 주셨습니까?
- 국가유산청장 최용천** 그것은 공식적인 내용을 잘 몰랐고, 당연히 국가적인 공식 행사로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했고 추후에, 나중에 상황 판단을 보고서 조금 판단이 미숙했던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조계원 위원** 그것은 변명 아닌가요?
- 국가유산청장 최용천** 상황이 그때는 그렇게 별도로 공문이 오거나 하지 않고 저희가 그냥……
- 조계원 위원** 아니,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나요?
- 국가유산청장 최용천** 그것은 궁능본부장하고 협의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조계원 위원** 누가요?
- 국가유산청장 최용천** 대통령비서실에서요, 문체비서관실에서요.
- 조계원 위원** 어떤 행사, 누가 그 행사를 이용하는지 확인조차도 안 했습니까?
- 국가유산청장 최용천** 제가 확인한 것보다는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궁능본부장이 직접 소통하고 같이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조계원 위원** 김건희 씨가 이용한다는 것 진짜 몰랐습니까?
- 국가유산청장 최용천** 아니, 이용하시는 것은 알았지만 그 상황, 내용 자체가 저희들은 공식적인 행사로만 판단했던 것으로…… 왜냐하면 비서관실이 요청을 하니까 그랬습니다.
- 조계원 위원**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지금 김건희 하면 만사건통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가계 전승자 가족 오찬 간담회 그리고 장애인들 문화예술 공연장

전립 약속 그다음 보스턴 미술관 방문 사리·사리구, 국립현대미술관 교류 제안 그다음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공연 예술 분야 보유자·이수자·전수생 20명과 오찬 간담회, KTV 무관중 국악 공연, 김건희의 황제관람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김건희 씨가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감에서도 지적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주의하고 관리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번 경우도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을 더 검토하고 허가사항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했던 것은 저희 불찰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게 안 생기도록 관리규정과 그걸 더 개선해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휴관일에 이용하면 100% 가산금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용요금은 받으셨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도 이용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추후에 이게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용자에 대한 것을 저희가 판단하고 앞으로 필요한 경우 거기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국가유산을 한가롭게 자기의 외국인 지인을 불러다 놓고 차나 마시는 장소로 이용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유산청장님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다시는 만사건통이라는 말이 국가유산청에서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형배 위원** 장관님,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까 제가 질문한…… 나중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증인 유인촌** 나중에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오늘은 안 하시겠습니까?

○**증인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은우 원장님,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 KTV는 누가 대표하게 됩니까?

○**증인 이은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민형배 위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 KTV는 누가 대표하게 되느냐고요.

○**증인 이은우** 대표한다는 말씀은 누가 지휘하느냐는 말씀이신가요?

○**민형배 위원** 예.

○**증인 이은우** 일단 글쎄요, 제가……

○**민형배 위원** 거기 비상기획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이은우**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문체부에 비상기획관 있지요?

○**증인 유인촌** 예,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비상기획관이 하게 돼 있어요. KBS 비상기획관은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계엄이 선포되면 제가 지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22시 30분경에 계엄령을 인지하고 나서 간부들한테 출근을 지시하셨더라고요. 왜 하셨어요?

○증인 이은우 일단 간부들이 나와서 상황을 파악하고……

○민형배 위원 뭘 하시려고? 아까 그런 내란 선전·선동을 계속하시려고요?

○증인 이은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민형배 위원 그런데 보니까 하셨더라고, 계속.

○증인 이은우 그것은, 하여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민형배 위원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 놓고 또 다른 직원들은 보내고 나서 가셨습니까? 3시 6분에 퇴근하셨어요.

○증인 이은우 예.

○민형배 위원 왜요? 직원들만 두고 가세요, 비상계엄 상황인데?

○증인 이은우 그때 퇴근하면서, 저희가 보통……

○민형배 위원 모여서 무슨 얘기 했습니까, 간부 모여서?

○증인 이은우 모여서 따로 회의는 안 하고요.

○민형배 위원 안 모였네요, 그러면 회의 안 하셨네요?

○증인 이은우 제가 그 관련된 부서장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뭐 하느라고요?

○증인 이은우 부장들이나, 편성부장이나……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지휘를 하셨네요?

○증인 이은우 그렇다고 봐야지요.

○민형배 위원 아까 제가 세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다 원장님 지시였네요?

○증인 이은우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형배 위원 아까 세 가지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왜 30분 늦게, 그다음에 민간 보도는, 그러니까 해제를 30분 늦게 발표하고 민간 보도는……

○증인 이은우 아니요, 그것은 제가 지휘를 했다기보다 우리 보도국에서 프로그램 제작을 그렇게……

○민형배 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장관님, KTV는 이와 관련해서 감사를 꼭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인촌 예.

○민형배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코리아풀 키 사 관련 상세 진행 경과를 보니까 처음에 5시 52분에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기 편집팀장이 카톡으로 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담당 직원이 계속 가는데 2차, 3차 연락을 계속하다가 어느 순간에 ‘국무회의 라이브 때 들어오는 형식으로 카메라 팀 하나 들어와 달라’라고 했다가 그걸 취소를 해요. 그리고 다시 키 사를 맡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증인 이은우 그렇게 들었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런 변화가 왜 있었던 거지요? 비상계엄이라 그런 거지요?

○증인 이은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민형배 위원 아니, 이런 일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잖아요.

○증인 이은우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왜……

○민형배 위원 좋아요. 그러면 7시 27분에, 이 담당 직원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부장님들 중에 혹시 계신가요? 대외협력실 행정관이 서문으로 인솔을 나오는데 출입하는 데만 1시간 걸려요. 평소에 없던 일이지요?

○증인 이은우 이게 사전에 경호조치가 돼 있지 않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없던 일이지요?

○증인 이은우 예.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대통령실이 불러 놓고 1시간 동안 기다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나요?

○증인 이은우 그것은……

○민형배 위원 경호조치 이것은 어차피 사람이 나와서 데리고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 건데?

○증인 이은우 제가 현장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시간 있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민형배 위원 이것 현장 상황 아시는 분이 누구신데요?

○증인 이은우 그 담당 직원이 알겠지요.

○민형배 위원 담당 부장 누구입니까? 거기 계십니까, 지금? 왜 늦었답니까?

○증인 박준석 보도부장입니다.

○민형배 위원 왜 늦었답니까?

○증인 박준석 그 상황은, 직속 상관이 편집팀장인데 조금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증인 추동진 보통 대통령 행사……

○민형배 위원 계엄 때문에 그런 거지요?

○증인 추동진 아닙니다.

○민형배 위원 그리고 그때서야 눈치를 챈 거잖아요, KTV가?

○증인 추동진 보통 보면 미리 사전에 다……

○민형배 위원 아니,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어요. 한밤중에 발표한 적이 없잖아요.

○증인 추동진 만일 계엄 상황이라면 금방 들어가야 됐겠지요. 그런데 1시간 동안 했다는 것은 그게 사전에 예고가 안 됐었기 때문에……

○민형배 위원 보세요. 계엄 예정 시간은 10시였는데……

○증인 추동진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라고 이를 붙여진 거기서 저지가 되니까 늦어진 거고. 무슨 7시대에 갑자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증인 추동진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왜 1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 증인 추동진** 불러 놓고 1시간 동안 기다리게 만든……
-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궁금하지도 않아요?
- 증인 추동진** 그 이유가 저도 궁금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실에 묻고 싶습니다.
- 민형배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계엄으로 인한 첫 주 경제 손실이 약 15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관광 같은 경우가 5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마이클…… 나이 교수 가 말하는 소프트파워라고 하는 부분,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파워, 그러니까 하드파워가 아니라 한국이 문화적인 힘을 가지고 세계적인 위상을 높였는데 이 소프트파워의 훼손 정도가 엄청난 폭설이나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 이상의 재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이 지금 내란도 인정을 아직은 못 하겠다, 반헌법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 직에 계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 적어도 계엄 손실 청구서에서 소프트파워 부분에 대한 나름의 청사진이라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 이 피해를 복구할 것인가. 아까 제가 시민에 대한 감사문이라도 써야 되는 것이 문제부의 역할 아니냐고 물었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보고요.

제가 요청사항을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이 인사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곳이 콘텐츠진흥원, 관광공사, 세종학당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기관장 만료일이 12월 27일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지요. 이 외에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학번역원 비롯해서 21개 기관 같은 경우는 임기 만료된 상임이사·상임감사가 99명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9개 기관 역시 2개월 이내에 23명의 상임이사·상임감사 공석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 시민사회가 함께 감시의 눈으로 쳐다볼 것이라는 것 얘기를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9월 24일 날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 지적하고 답변받았던 사안 기억하시지요?

○**증인 유인촌** 예.

○**강유정 위원** 사회적 물의 많이 일으켰다고 심지어 정몽규 축구협회장 본인이 인정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범률 위반행위 의혹도 있다고 그것 역시 본인이 인정했어요, 같이 썼고 비용도 지불되지 않았다. 그리고 장관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13일 열린 40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정몽규 축구협회장 임원 연임 자격이 승인됐습니다. 알고 있지요?

○**증인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강유정 위원**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사실상 여러 명의 승인 요구를 받았어요. 정몽규 회장 포함해서 7명이 임원의 연임 제한 예외를 심의받았어요. 그런데 정몽규 회장 외 1명만, 딱 2명만 예외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논란을 거친, 사회적 혼란을 틈타 오히려 자격 승인을 득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유인촌**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강유정 위원** 그랬을 거라는 건 뭘까요?

○**증인 유인촌**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감사를 했던 결과도 있고 현재 대한체육회 같은 데는 수사 진행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문체부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런데 왜 연임 제한을 해제해 줬나, 제가 궁금해서 대한체육회하고 40차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록, 평가표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기홍 회장에 대한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 심사결과는 한 의원실을 통해서 언론까지 전부 다 공개가 됐거든요. 이기홍 회장은 공개가 됐단 얘기예요. 그런데 정몽규 회장은 신청자의 기부 내역, 징계, 범죄사실 등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면서 저희 의원실에 안 왔어요.

조금 쉽게 얘기할게요. 이기홍 회장은 자료가 다 왔는데 왜 정몽규 회장은 자료가 안 오는 겁니까? 갑자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출 거부의 이유를 들었는데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 아닙니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하는 조치 자체가?

○**증인 유인촌** 글쎄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몽규 회장, 그러니까 공정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안 보내 줬다는 것이지요, 지금?

○**강유정 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을……

○**증인 유인촌** 저희들한테도 그런 것은 안 보낸 것 같은데요.

○**강유정 위원** 아니요, 지금 대한체육회장은 다른 동료 의원에게 자료가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있어요. 정몽규 회장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줄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이유로 줄 수 없다라는 건데, 지금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이미 아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공정위원회 제40차 회의록에 대한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증인 유인촌** 공정위원회 쪽에, 물론 그 사람들하고 지금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요.

○**강유정 위원** 이기홍 회장만큼만 똑같은, 회의록과 관련돼서 주시면 됩니다.

○**증인 유인촌** 한번 알아보고요, 그 부분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문석 위원** 유산청장, 아까 9월 3일 김건희의 종묘 차남회 그걸 공식적인 행사로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승천** 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양문석 위원** 처음에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국가유산청장 최승천** 제가 직접 연락을 받은 게 아니고 궁능본부장을 통해서 장소 사용의 건의가 들어온 걸로 이렇게 문체비서관실을 통해서 와서 저는 그걸 당연히 공식적인 행사로 판단했고 그러면 장소 사용을 허가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양문석 위원** 허가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러니까 만약에…… 사용 허가라기보다는 협조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그때 제가, 그때는 국회에 나와 있었을 때입니다.

○**양문석 위원** 그러면 유산청장이 이것 다 해 줬네,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제가……

○**양문석 위원** 궁·능 관람에 대한 규정 32호 알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알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장소사용허가 신청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된다, 5일 전에. 그리고 궁능유산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 청장이 이 3개 다 무시했네,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위원님, 그게 국가에서의 행사일 경우에는 사전에 그걸 공문을 안 하고 저희가 추후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양문석 위원** 보세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나중에 공식적인 행사……

○**양문석 위원** 잘못된 관행이잖아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건 저희가 나중에……

○**양문석 위원** 규정을 왜 만들어요. 지금 장난쳐요?

유산청장!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양문석 위원** 국악인 무료 공연, 김건희한테 공연 상납 그 사건 있었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지난번에……

○**양문석 위원** 어떻게 유산청장은 김건희하고만 걸리면 계속해서 그렇게 편법이요, 특혜요, 규정 무시요!

유산청장!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양문석 위원** 이미 이와 관련된 유산 문제에 대해서 유산청장은 국회에 와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지금 3개를 날린 거예요. 신청서 안 받고 장소 사용 5일 전에 무시했고 그다음에 사용 심의 거쳐야 되는데 안 했고.

그런데 뭐요? 아까 조계원 위원 이야기할 때 절차 부분에서는 미흡했다고요?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절차를 짓뭉갠 유산청장이 할 말이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34조의 장소사용허가의 예외 사항을 저는 준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문석 위원** 보세요!

김건희가 대통령이요? 김건희가 대통령이냐고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아닙니다.

○**양문석 위원** 김건희 문제만 나오면 어떻게 아부를 떨고……

유산청장 계속 그런 모습이야. 맞지요? 국악인 불러서 무료 공연시키고.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공식 행사라고요?

(임오경 간사, 전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공식 행사라고 제가 판단했다고 그랬지 공식 행사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양문석 위원** 공식 행사라고 판단한 근거가 뭐예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34조에 의하면 궁능본부장이 국가에서 방문, 부대행사와 연례적인 정부 주최 혹은 주요 행사에는 장소 사용을 허가하는 것으로 본다는 그런 규정을 저희가 적용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아니……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말씀드렸고요.

○**양문석 위원** 잘못된 판단을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생각 안 하고, 김건희 행사기 때문에.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제가 말씀드리건대 그때 제가 국회 예결위에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습니다.

○**양문석 위원**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사용자가 누구인지 아직까지도 파악하지 못한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건 나중에 알았습니다.

○**양문석 위원**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직까지도 판단하지 못한다고.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건 나온 보도하고 관련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양문석 위원** 아니, 누가 사용하는지도 모르는데 국가유물을 빌려줘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거기 장소, 망묘루라는 곳은 일반인도 대관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장소이기는 합니다.

○**양문석 위원** 몇 번이나 그런 사례가 있어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가 최근에 들어와서 신청이 오면 사용한 사례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문석 위원** 그런 장소 사용 과정에서도 다 5일 전에 신청서 제출했을 거고 심의 거쳤을 거고,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양문석 위원** 비용 받았어요? 비용 안 받았잖아요, 또.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외규정을 적용했던 것이 저희들의……

○**양문석 위원** 그렇지요? 유산청장은 계속해서 김건희와 관련해서는 계속 예외규정 적용이에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아닙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양문석 위원** 김건희가 권력이 있다고 해서 유산청장이 거기에 아무 떨고 특혜 주고 예외규정 적용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뭐? 이용자가 누군지 아직까지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비용 문제를 슬쩍 풀쳐 가지고 넘어가요?

그다음에 창덕궁, 경복궁에 있는 가구 누가 빌려 잤어요? 무슨 근거로 빌려 잤어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 아마……

○**양문석 위원** 창덕궁에서 원형 탁자 하나, 의자, 일반 주반 6개, 경복궁에서 소반 6개, 다 문화재예요.

○**국가유산청장 최승천** 아니, 그건 아니고요. 문화재…… 그건 저희가 현대……

○**양문석 위원** 누가 빌려 갔어요?

○**국가유산청장 최승천** 그건 아마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비서관실에서 그걸 요청을 해서 빌려 갔다고 들었습니다.

○**양문석 위원** 비서관에서 요청하면 불법적인 것도 근거도 없는 것도 규정에 없는 것도 다 합니까? 그래서 김건희 이야기만 하면 그렇게 꾸뻑꾸뻑 죽고 국악인 무료 공연하고 특혜, 예외규정, 모든 절차 무시!

사적으로 국가유산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국가유산청장 최승천**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 판단한 겁니다.

○**양문석 위원** 공식적으로 사과문 발표하세요, 내일.

○**국가유산청장 최승천**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판단했던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게 잘못된 걸 나중에…… 사용자 그것도 저희가 조금 더 치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내일 공식적으로 사과문 발표하시고 의원실에다가 사과문 보내 주세요.

○**국가유산청장 최승천** 예.

○**양문석 위원** 저는 유산청장 같은 사람 때문에 이 정권이 이렇게 망조가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권력이라고 예외규정, 절차 무시, 무료 상납, 그런 사람이 유산청장이에요. 그리고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유산청장도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 분명히 명심하시고 두고두고 반성하세요.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지막 순서로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PPT 띄워 주세요.

종묘 사적 사용 누가 지시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면)

장관님, 황제 차담회에 종묘 사용, 장관님이 지시하셨어요?

○**증인 유인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임오경 위원** 처음 듣는 얘기예요?

○**증인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어떻게 하지요? 제가 받은 제보로는 장관님이 지시한 걸로 제보를 받았는데 제가 잘못 받은 제보일까요?

○**증인 유인촌** 그런 것 같은데요.

○**임오경 위원** 잘못 받은 건가요?

○**증인 유인촌**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우리 정부는 다 밑의 사람으로 이렇게 떠넘기네요.

○**증인 유인촌** 떠넘기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까지 저한테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겠지요.

○**임오경 위원** 그러면 이 차담회 행사명이 뭐였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증인 유인촌** 저는 잘 모릅니다.

○**임오경 위원** 모르십니까?

○**증인 유인촌** 예.

○**임오경 위원**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장관님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

○**증인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지시도 하지 않았다?

○**증인 유인촌** 예.

○**임오경 위원** 그러면 국가유산청장님이 지시하셨나요? 누구한테 보고받았어요, 이것?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어떤 차담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오경 위원** 황제 차담회, 지금 종묘 관련돼서……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종묘 건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임오경 위원** 청장님도 누가 요청이 왔어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아닙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은 그날……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국회에 나와 있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국회에 있었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임오경 위원** 제가 날짜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청장님 어디 계셨나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예결산 때문에 국회에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사적으로 또 사용은 했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청장님께 물을 게요. 행사명이 뭐였었나요, 정확히?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제가 사실은 그 부분을 정확한 행사명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장소 사용의 허가로만 온 걸로만 지금 기억을……

○**임오경 위원** 장소 사용은 하지만 행사명은 기본적으로 다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니까……

장관님도 몰랐다, 그러면 용호성 차관님 알고 계셨나요? 이 행사명이 뭐니까? 이것 그 당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참여한 행사인데 이것 행사명이 뭐니까?

여기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분들, 행사명이 뭐였습니까? 알고 계신 분 답하십시오.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그 부분에 대해서 8월 30일 날 저희한테 와서 업무 협의를 할 때도 그 행사에 대해서 공식적인 명칭은 사실 없었고 그냥 김건희 여사 차담회 이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공식 명칭이 김건희 여사 차담회요?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오경 위원** 김건희 씨 행사 자체가 문체부랑 국가유산청은 공식 행사입니까? 도대체 어디서 지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두렵습니까? 이를 석 자 하나 대는 게 그렇게 두려워요?

지금 위에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 자리에 다들 계세요. 그런데 그 이름 석 자 하나 말씀들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왜 자꾸 밑으로 떠넘깁니까? 위에서 지시해서 일을 한 공무원들에게 왜 다 책임을 전가시키냐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자리에서

책임을 지는 행동은 왜 아무도 안 하시는 겁니까?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 나와 계시지요?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여기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최근 10년간 대통령과 영부인이 궁을 방문한 것이 총 몇 회입니까? 몇 번 있습니까?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그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임오경 위원 잘 모르시지요?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기록 관련……

○임오경 위원 제가 보여 줄게요.

올리세요.

총 일곱 번이 있습니다. 모든 방문 때마다 방문일과 행사 내용과 참석자를 파악하고 그리고 행사명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보이시지요?

그런데 2024년 9월 3일 날 사용한, ‘영부인 외’라고 적혀 있어요. 김건희 씨 행사는 자체가 공식 일정으로 그냥 들어가 있어요. 행사명도 기입하지 않아요.

장관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유인촌 글쎄요, 아마 차담회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큰 행사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임오경 위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게 휴관일 때 그냥 영부인 차담회로 빌려주는 장소입니까?

국가유산청장님, 이 장소 절차 없이 빌려줄 수 있는 겁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절차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임오경 위원 어떻게 지켜야 되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사전에 허가받은 공식적인 행사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계획서라든가 이런 게 첨부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챙기지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유산청은 아무리 대통령실이고 김건희 씨라고 하더라도 공식 일정인지 개인 일정인지 정도는 확인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연락이면 경복궁 용상이라도 내어 줄 것입니까? 그렇게 하실 거예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날 김 여사와 함께 종묘를 찾은 일행은 누구였는지 알고 계세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나중에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접했고, 저희는 보통 외빈 정도로만 생각을 했고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임오경 위원 지금 코바나컨텐츠 이 단어만 나와도 우리가 지금 범죄로, 범죄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코바나컨텐츠예요. 코바나컨텐츠 주관으로 국내 전시회를 열었던 크리스토퍼 로스코라는 미국인 작가 일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필 본부장님, 코바나컨텐츠 관련 작가와의 만남이 국가 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일단……

○임오경 위원 묻는 거예요, 본부장님한테 제가?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처음에 대통령실……

○임오경 위원 관련 작가와의 만남이 국가 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맨 처음에 대통령실 요청으로 와서 저희가 공식적인 행사로……

○임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바나컨텐츠 관련 작가하고 만남이 국가 행사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개인적인 이용의 하나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 문화유산에 대한 명백한 사적 사용 맞지요?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임오경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임오경 위원 유산청장님, 문화유산에 대한 명백한 사적 사용 맞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저희들이 나중에, 정확하게 인원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지금 그것이 판단된다면 그렇게 판단하기는 합니다.

○임오경 위원 장관님, 이것 들으셨지요? 장관님은 지시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저는 정확하게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명백하게 문화유산에 대한 사적 사용 맞지요, 장관님이 보실 때도? 행사명 기입 하나도 없고 ‘영부인 외’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절차도 뺏지 않는 게 정상 절차입니까? 그러니까 청렴도에서 우리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후손들에게 조상들의 소중한 유무형 자산을 잘 물려주겠다는 투철한 사명감 정도는 있어야 문체부와 유산청 공무원 아닐까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저는 장관과 청장의 무능, 무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국무위원을 대표해서 대한황실 후손들과 국민들께 진상규명을 이 자리에서 약속하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두 분이서 저는 사과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과하시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어쨌든 종묘라든가 궁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아까 양문석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고 종묘를 포함한 왕실문화를 관리하는 그런 쪽에다 저희가 사과문을 게재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 앞에서도 공식으로 사과……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임오경 위원 후손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후손뿐이 아니라 국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관례와 규정을 더 강화시키고 더 열심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장관님에게는 제가, 더 이상의 이런 행사가 지속되어서,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차 과정 무시하는?

○**증인 유인촌** 절차와 과정을 잘 지켜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임오경 위원** 예, 저도 그렇게 꼭 말씀을 하고 싶어요.

절차 과정을 밟으면 됩니다. 행사 내용을 적으시면 되고 영부인 외 누가 참석했는지 이렇게 기본적인 것은 해 놓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제가 인정을 해요. 하지만 행사명 자체도 기록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증인 유인촌** 지금 들어 보면 대단히 비밀스러운 일도 아니고 또 대부분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행사를 하는데 평일 날 갔으면 오히려 관객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임오경 위원** 그것은 평계……

장관님,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요.

○**증인 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여간 그런 걸 잘 지켜서 그대로 정식대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김건희 씨 자체가 불법, 편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권력의 틀 안에서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면 모든 게 통용된다라고. 이것을 우리가 정부부처에서 이런 식으로 다 받아 주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는 다 고스란히 누가 받습니까? 왜 장관님이 그 피해를 다 받아야 되고 왜 청장님이 그 피해를 받아야 되고 왜 차관 그리고 공무원들이 받아야 되는 겁니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본적인 절차라도 앞으로는 밟아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추가질의를 안 하는 걸로 인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로 안 그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정말 생계가 막막하다고 봅니다. 이번 계엄 사태로 가장 치명타를 입은 산업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장관님?

○**증인 유인촌** 아무래도 나타나는 게 관광업계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아마 연말 특수를 봐야 하는 그런 작은 가게들이나 상점들, 시장 이런 데가 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 예, 그렇습니다. 관광산업이지요.

올해 2000만 명 방한객 유치를 목표하셨지요?

○**증인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현재까지 성과는 어떻습니까?

○**증인 유인촌** 현재까지 약 1600만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등 주요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 자국민들에게 주의 권고 문구를 담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거야말로 나라 망신 아닐까요?

○**증인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장점인 안전과 치안에 대해 세계 주요국들이 불안감을 표출한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겨우 회복하고 있는 관광산업에 정부가 찬물을 들이

부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 유인촌** 아마 올 연말까지의 피해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더 중요한 건 내년 연초에, 왜냐하면 내년에 계획돼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의나 또 취소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는 뭐 그렇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

○**임오경 위원** 아니지요. 지금 현재 각 나라 국무위원들이 예정했던 방문 일정 다 연기하지 않았어요?

○**증인 유인촌** 물론 그런……

○**임오경 위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보셨지요? 연기되었습니다.

○**증인 유인촌** 일반 관광객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오경 위원** 그리고 취소하는 나라가 안전하다고 보겠습니까? 각 다른 나라에서도 국무위원들이 예정 방문을 다 연기하고 있는데 관광으로서 안전하다고 어떤 나라에서 어떤 국민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나라가 수십 년간 정전 국가임에도 치안강국으로서 쌓아 온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가 보고 싶은 나라, 여행지였었는데 지금 위험국으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동남아 관광객이 한국 여행을 취소하고 그 행선지를 어디로 바꾸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증인 유인촌** 예, 뭐……

○**임오경 위원** 지금 일본으로 다 행선지를 바꾸고 있어요.

○**증인 유인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각 상대국마다 편지도 보내고 우리 주재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또 여행사들을 통해서 계속 안전성과 관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편지를 보냈고요. 또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행사를 새로 계획하고 있어서 피해를 좀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내년 1분기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19% 줄어들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전망이 나왔습니다.

○**증인 유인촌** 예상인데요. 또 아마 이런 부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는 이미 지난번 관광장관 회담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것들이 꽤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번 사태 때문에 피해 보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장관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제가 올해 지금 10월까지의 데이터만 따져도 약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나오고 있어요. 인바운드 관광객이 263만 2335명, 아웃바운드 관광객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720만 815명으로 나오고 있어요.

○**증인 유인촌** 일본하고의 관계 때문에……

○**임오경 위원** 지금 현재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낸 자료 보셨습니까?

○**증인 유인촌** 다 못 봤습니다.

○**임오경 위원** 숙박업자, 외식업자 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작년 대비 올해에 경영 사정이 곤란해졌다고 응답한 결과가 83.6%에 달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실 게 아니라 현장으로 직접 뛰셔야 됩니다.

○**증인 유인촌**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리고 방안책을 어떻게 모색하실 것인지 그러한 논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유인촌** 예, 지금 현재 민관합동점검단도 구성돼 있고요. 나름대로 이제 1월부터는 응자, 투자 이런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숙박업소나 이런 쪽으로 저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리고 또 12·3 계엄 사태 이후 국내 정치 상황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거의 절반, 46.9%에 달합니다. 숙박업자는 12·3 비상계엄 이후로 예약 자체가 없고 문의 또한 없다고 합니다. 기존 예약이 취소되고 계엄 사태 이후 사람들의 이동 자체가 없어서 현재 예약 및 숙박률이 제로 퍼센트가 되어 생존 위기라고 합니다.

이게 대기업의 호텔들은 큰 위협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장관님, 제가 지금 이 통계를 보여 드리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 소상공인 때문입니다. 이 관광업계에 우리 지방자치 분권 다 폭락합니다. 이 소상공인들 재발방지 어떻게 대안 구상하고 계십니까?

○**증인 유인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응자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고요. 일단 업체들 또는 여행 회사들 이런 쪽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내수 진작될 수 있도록 하여간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잘못도 없는 지자체장들이 지금 발 벗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도 선제적으로 꽁꽁 얼어붙은 관광산업에 온기를 좀 불어넣을 수 있는 추경 및 여행바우처 확대 또 대한민국 홍보영상 마련 등 적극적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증인 유인촌**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임오경 위원**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게임 및 콘텐츠업계에 끼친 피해액이 총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증인 유인촌** 아직 정확하게 피해액수까지 집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콘진원 원장님, 이것 말씀하실 수 있어요?

○**증인 유현석**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가 최근 들어서 업데이트된 건 없고요.

○**임오경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넷플릭스 순방문자 수는 1일 271만 9519명, 4일 238만 2528명으로 약 33만 명이 감소했으며 티빙은 동 기간 약 4만 명, 쿠팡플레이이는 약 21만 명의 순방문자 수가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영화 분야 피해도 극심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윤석열 내란 이후에 12월 4일부터 16일 까지 일일 평균 관객은 35만 3656명으로 작년 12월 평균인 53만 8370명보다 적으며 코로나 시기였던 2022년 12월 45만 7153명보다 적은 수치입니다.

드라마, 예능이 결방됐습니다. ‘열혈사제2’, ‘지금 거신 전화는’, ‘옥씨부인전’, ‘나 혼자 산다’, ‘아는 형님’ 등이 결방되고 뉴스 특보가 그 자리를 대신 채웠습니다.

장관님, 드라마, 예능 결방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증인 유인촌** 광고 문제가 생깁니다.

○**임오경 위원** 다 알고 계시잖아요. 또 출연금 지급이 늦어지게 되지요?

○증인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증인 유인촌 빨리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장관님이 방송인으로서 현장에 계셨던 분이니까 더욱더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인 유인촌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러한 부분들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또 피해 입은 콘텐츠산업 피해 현황 파악해서 지원방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아침부터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그랜드코리아저 윤두현 사장님 나오셨지요?

○증인 윤두현 예.

○임오경 위원 오늘 아침에 우리 민주당 위원들이 비공개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차 저희 위원장실을 방문해 주셨지요?

○증인 윤두현 예.

○임오경 위원 그런데 들어오셔서, 이게 우리 대한민국 문화입니까? 왼손을 주머니에 넣으시고 한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대한민국 문화입니까, 악수의?

○증인 윤두현 그게 그때 왼쪽 주머니에 명함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내면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오른손으로는 악수한다고 손을 내밀고 왼손에는.....

○임오경 위원 처음부터 왼손을 이렇게 넣고 들어오시면서 계속 손을 넣고 계신다? 저는 들어오실 때부터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위원님 통과하시고 저한테 오실 때 제가 주춤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증인 윤두현 예, 혹시 제가 의식.....

○임오경 위원 제 눈이 정확하게 사장님 주머니 속에 들어간 손을 확인했습니다. 그거 보셨지요? 제가 볼 때는 그걸 보시고 슬그머니 손을 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위원님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증인 윤두현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왼쪽 주머니에 명함을 넣어 놔 가지고, 제가 외투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투를 벗으면서 한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혹시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손이 있어서 그렇게 인식이 됐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윤두현 사장님께서도 21대에 저와 함께 국회의원으로서 같이 일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지 않았습니까?

○증인 윤두현 예.

○임오경 위원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시고 들어오셔야지요. 저희 비공개회의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셨으니까 들어오시라고 전체가 다 일어났습니다.

○증인 윤두현 아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올 때는 미리 인사하는 것이 지켜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윗도리를 벗고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제가 벗으면서 왼쪽 주머니 안에 있는 명함을 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그런 것 하지 않도록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오늘 그거를 확인하고 저한테 인사하실 때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참았고요. 제가 그걸 확인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또 주머니에다 손 넣고 그렇게 하셨더라면 제가 아마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요청 부탁드립니다.

○증인 윤두현 예.

○임오경 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이기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제가 추가발언 신청을 안 해서, 오늘 제 질의는 준비가 돼서 다 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의사진행발언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흥분해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큰소리를 내서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큰소리 잘 안 내는데 아까 좀 흥분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비상식적, 반헌법적 군사쿠데타로 인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50만, 많은 직업군인들, 직업군인으로만 따지면 약 30만 직업군인들이 정말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군인의 가족들, 그 군인의 아들, 자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눈치 보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정말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정말 오지에서 국가를 지켜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명예를 단지 몇 명의 정치군인들이, 잘못된 전쟁광들이 깡그리 45년 전으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치유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고위공직자들, 장관, 차관이하 각 기관의 장들께서 국회에 나와서 좀 억울한 일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내 의도가 그것이 아닌데, 내 뜻이 그것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공격을 받고 이 공격은 나에 대한 개인적 공격이 아니라 우리 조직에 대한 공격이고 음해고 모독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공직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 드리는 곳입니다. 감정이 있다기보다는 대한민국이란 이 거대한 국가가 정말로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 국회의 기능을 가지고 행정부처를 운영하고 계신 기관장들과 장관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이은우 원장, 임오경 위원님의 질의에 본인이 울컥하고 억울하셨는지 위원님 질의하는 데 발언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오해입니다’, ‘억울합니다’, 몇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단어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기관장, 리더는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한국정책방송원에 있는 많은 직원들이 왜 그런 오해를 받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비판을 받아야 됩니까? 누구 때문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KTV가, 한국정책방송원이 작년에 있었던 황제관람서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있었던 전쟁상황에 대한 생중계 준비 그리고 계엄령이 떨어지는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잘못된 편향적 보도로 인한 오욕 이런 것들이 오래 남을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도자는 무엇을 했는지, 고위간부들은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임오경 위원 예.

오늘 나온 KTV 이은우 원장 태도와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의결정족수가 좀 부족해서 의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속기록에는 좀 남겨 놔야 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은우 원장은 앞서 저의 질의 중 KTV가 지난 10월에 북한 기습도발 시 생방송 제작안을 만들고 이번 계엄 내란에 동조하는 등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동조한 것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 부당함을 지적하는 제 발언에 대해 말씀이 지나치다고 반박하며 내란자들을 응호하고 국회를 모욕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KTV의 대부분의 직원들은 성실히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원장을 비롯한 수뇌부들의 부역 행위, 동조 행위를 지적한 것인데 이은우 원장은 마치 제 발언에 대해 모든 KTV 직원을 겨냥한 듯이 표현하며 문체위에 대한 모욕적인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이은우 원장의 내란동조죄, 국회모욕죄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음 열리는 상임위에서 반드시 이은우 원장을 고발 의결할 수 있도록 속기록에 남기고 위원장님에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임오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회의 시작 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여야 간사 위원님들 사이에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박수현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증언해 주신 증인 및 배석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및 위원회 직원 여러분, 속기, 경위 직원 여러분, 국회방송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증인 명단

증인(1인)

성명	직책	신문요지	출석일	비고
추동진	한국정책방송원 편집팀장	계엄 관련 방송편집업무에 대한 질의	2024. 12. 20.(금)	추가

○출석 위원(15인)

강유정 김승수 김윤덕 김재원 민형배 박수현 박정하 배현진 신동욱 양문석
이기현 임오경 전재수 조계원 진종오

○첨가 위원(1인)

정연욱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전문위원 전완희

입법심의관 김충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김대진

국가유산청

청장 최용천

기획조정관 황권순

운영지원과장 박정섭

궁능유적본부

본부장 이재필

○출석 증인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황성운(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최보근(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장)

김현준(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관)

채수희(문화체육관광부 해외홍보정책관)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김정훈(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이은우(한국정책방송원 원장)

박준석(한국정책방송원 보도부장)

이승훈(한국정책방송원 제작부장)

이찬구(한국정책방송원 기획편성부장)

이성구(한국정책방송원 방송기획관)

추동진(한국정책방송원 편집팀장)
유현석(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직무대리)
서영충(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리)
윤두현(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

【보고사항】

○의안 회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0.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0.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3)

이상 2건 12월 11일 회부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3.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4)

12월 16일 회부됨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6.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6.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4)

이상 2건 12월 17일 회부됨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2024. 12. 17.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58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597)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03)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04)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0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09)

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1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12)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13)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14)

이상 13건 12월 18일 회부됨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2024. 12. 18.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8.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8.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3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36)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37)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39)

이상 6건 12월 19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6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2024. 12. 13.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8)

이상 2건 12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